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8년 6월 2일
음력 4월 29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 The chongji news |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2년 제103호

부산 정각사(正覺寺) 양부 만다라 봉안 불사 회향

"총지종 만다라 봉안, 한국밀교 역사상 큰 획"



▲부산 정각사 만다라 불사가 5월 26일 원만 회향됐다.

불교총지종 포교 거점 도량 부산 정각사가 5월 26일 태장계, 금강계 양부 만다라 봉안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우주법계의 상징인 양부 만다라를 봉안하게 된 것은 부산 불교계의 경사이며, 한국밀교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대작불사의 회향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크신 원력과 여러 신도님들의 지극한 기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양부 만다라엔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의 성불 과정이 함축돼 있다"며 "육자대명왕 본존과 태장계, 금강계 양부만다라를 통해 신심을 발하고 정진할 때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하고 깨달음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설했다.

정각사 주교 법공 정사는 봉행사에서 "양부만다라 조성과 봉안이라는 대작불사의 회향을 맞고 보니 참으로 가슴이 벅차다"며 "특히 한국불교계에서 최초의 일대불사라는 점에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희열이 넘쳐 흐른다"고 밝혔다.

법공 정사는 이와함께 "이번 불사의 원만한 회향은 원로스승님과 승단, 교도 보살님들의 원력과 용맹정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그간의 과정은 모든 것이 우리 마음그릇을 키우는 시험이었고 수련이었다"고 술회했다.

원송 통리원장은 봉축사를 통해 "대승불교의 정점인 최상승 밀교 교학과 수행원리가 상징적으로 내재된 만다라가 본 종단에 의해 조성되고 봉안된 것은 한국불교사에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번 만다라 봉안이 본 종단 위상 제고와 정통 밀교 교리를 널리 선양하는데 큰 몫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송 통리원장은 또 "불사를 위해 헌신하신 정각사 법공 정사님 전수님과 부산경남 교구장님, 지회 회장 보살님과 간부 보살님, 정각사 신정회 간부님, 여러 보살님 모두에게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가 있으시기를 서원한다" 축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내빈 축사에서 "청정한 정각사 도량에 부처님 깨침을 상징하는 만다라가 장엄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부처님 깨달음을 바탕으로 부산의 모든 종단이 화합하여 한국불교의 선두가 돼자"고 강조했다.

총지종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공과 정각사 도현 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불사는 본존 제막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개식사, 유가삼밀, 봉행사, 봉축사, 발원문, 종령법어, 내빈축사, 축가,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 신인록 지회장이 발원문을, 종립 동해중학교 강경중 전 교장이 축사를 각각 낭독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우승 정사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 스승과 진각종 부산교청장 명륜심인당 혜명 정사, 동래소방서 이영태 소장, 삼세한방병원 공복부 행정부원장, 종립 동해중학교 박수현 교장 등 내외 귀빈 1천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이날 정각사 양부 만다라 봉안 불사는 지난 해 춘계강공회에서 있은 교화활성화를 위한 전국사원 만다라 봉안불사 결의에 따른 것이다.

총지종이 현대 한국밀교 역사상 최초로 봉안한 양부 만다라는 그 자체가 법계의 상징이며 조화로운 우주의 축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불과 중생구제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육자진언 본존의 좌측엔 태장계 만다라, 우측에는 금강계 만다라가 봉안돼 있으며, 태장계 만다라엔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414존의 불보살을, 금강계 만다라는 아홉개의 소만다라에 1,461존의 제불보살을 모시고 있다.

(관련특집화보 10면)

=부산 윤우채 기자

"불성 밝히면 일체중생이 부처님"

부처님 오신날 연등법회 봉행



▲자성학교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등법회가 5월 12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봉축법어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 참 뜻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밝고 청정한 마음으로 남과 이웃을 위한 등불을 밝혀서 탐욕과 증오와 망상이 사라지고 서로 나누고 화해하는 향기로운 광명천지의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 해야 한다"고 설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불성(佛性)을 깨달아 자리이타의 등불을 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송 통리원장은 봉축메시지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무명(無明)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원만구족한 지혜를 몸소 깨달아 일깨워주시고, 일생동안 동체대비의 실천수행으로 탐. 진. 치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며 "부처님의 삶은 비록 역사적으로 유한했지만 깨달음의 요체로서의 법신(法身)은 시공(時空)을 초월하고 생멸(生滅)에 들지 않는 영구불변한 존재로 지금도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식불공 후엔 찬불가 합창, 가야금 병창 공연, 자성학교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영화 상영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불사 봉행

7월 15일까지 전국 각 사원서

불교총지종은 5월 28일 서울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7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불사를 봉행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궤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2번 실시되며, 이번 하반기 49일 불공은 오는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정송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염송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종조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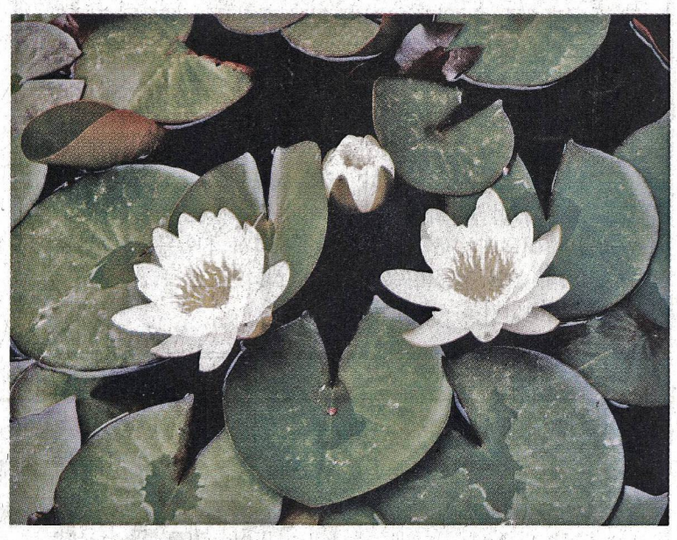
연기(緣起)

인연(因緣)은 곧 우주생명의 유동(流動)이다. 육대무애가 곧 무아(無我)이다. 서로 가치를 인정하며 평등하고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무아는 곧 아(我)의 확대이며 이타행(利他行)이다.

아가 실재가 없기에 무아가 성립되고 아의 승화가 된다.

-종조법설집 잠언편



▲서울 총지사 백련 白蓮

하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전생으로부터 쌓아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펴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호국계주 진언으로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하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재난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일 시 : 총기 37년 5월 28일 ~ 7월 15일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장 소 : 총지종 전 사원

불 교 총 지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사 설

진호국가불공과 사대보은(四大報恩)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鎭護國家佛供)'이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진호국가불공은 '국가를 외적의 침략이나 환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교의식'이다. 이 불공은 국운융창(國運隆昌)과 국태민안(國泰民安)과 부국강병(富國強兵), 재난소멸을 위한 호국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희사하고 서원하는 불공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불공은 불교의 사대보은(四大報恩)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은(國家報恩)의 불공인 셈이다. 그러므로 진호국가불공은 국가보은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보은 뿐만 아니라 사대보은의 불공으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이번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므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불공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진호국가불공은 국가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공으로서 넓게는 사대보은의 불공기간인 셈이다.

사대보은(四大報恩)은 삼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국가의 은혜,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삼보의 은혜는 불법을 만나 수행할 수 있게 해준 인연이다. 삼보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진호국가불공의 또다른 의미이다.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불공이다. 종조 원정 대종사께서는 부모님과 부처님에 대한 보은(報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님 낳아서 길러 주시고 부처님 모든 것 내게 주시니 세세생생 그 은혜 갚사오리다.' 이를 공양심고법(供養心告法)이라 한다. 그래서 하반기 49일 불공이 끝나는 7월15일은 우란분절이자 백중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날은 지옥에 빠져 있는 어머님을 위하여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가 법회와 공양을 올렸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종단에서는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재를 올리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불공인 것이다. 이날을 특별히 종단에서는 '해탈절(解脫節)'이라고 부른다. 영원한 열반에 들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진호국가불공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가보은, 부모보은 등의 사대보은의 불공이다. 사대보은의 실천행이 종단의 보은시와 반포법시이다. 보은시(報恩施)는 모든 은혜를 갚기 위해 베푸는 보시이다. 삼보와 부모·국가·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실제로 재보시(財布施)를 행하는 것이다. 반포법시(頒布法施)는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法布施)이다. 이 법보시는 경전(經典)을 반포하거나 간행(刊行)하고 널리 보급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행하는 재보시까지 포함된다.

이 진호불공기간에 축원이나 영식천도, 생일·돌·회갑·결혼·승진 등 기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본인과 가족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나 대소사(大小事)가 있어 불공할 때에는 진호국가불공과 함께 반포법시와 보은시를 병행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곧 국가를 위한 불공인 동시에 삼보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갚는 불공이기 때문이다. 경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바가 있어 정진하는 사람은 진호국가불공과 함께 사대은혜에 보답하는 보시법을 행하면 속히 일체서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진호국가불공 중에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실천행과 보시행을 병행하는 것은 마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49일 불공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법신불의 당체설법이니 공덕 일으키는 법문으로 받아들여 더욱 염송하고 희사법을 세워서 49일을 잘 마쳐야 할 것이다. 49일 정진불공의 원만한 회향과 그 공덕으로 일체서원이 성취되기를 서원하는 바이다.

"우리 절 염원 이뤄진 날입니다"

성화사 만다라 불사 봉행



부산의 중심지에 자리잡은 성화사.

5월 16일은 성화사 모든 보살님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양부 만다라를 모시는 날이다. 성화사만의 특별한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기에 더욱 마음이 환희로워진다.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지만 20여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비만 오면 공양처 주방에 빗물이 천장에서 줄줄 흘러서 여기저기 크고 작은 대야를 줄 세워 놓았던 것이 떠오른다.

협소해서 보수만 하면서 넓고 좋은 곳으로 옮기지 않고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았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종령님께서는 "진리의 세계를 담고 있는 태장계 만다라와, 성불의 과정을 그린 금강계 만다라를 모시고 중생 교화에 많은 복을 지어서 함께 더불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발원해주셨다.

성화사의 주교이신 지광 정사님께서는 "생사사성(生事事成)이면 성사사생(成事事生)"이라고 말씀하셨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이루고, 또 일을 이루면 다시 또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불가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 5월, 석가탄신일도 있는데 만다라 봉안과 겹쳐서 더 일이 많아졌다.

간절하게 뜻을 내면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새로운 뜻이 또 생긴다.

일이 생겼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 졌을 때 오는 환희심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가다 보면 내 수준 역시 올라가고, 나중에는 성불의 단계까지 간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와 중생의 세계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만다라를 모시면서 동참판까지 바꾸었다. 동참판은 무릇 서원만 하는 곳이 아니다. 그 곳에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 있고 영식이 있는 곳이다.

본존 만다라를 문자부처님이시고, 동참판은 곧 법만다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패마다 각자의 조상님이 계시고, 영식이 계신 곳, 제재난, 소구여의, 영일체를 모시고 그 곳에서 모든 서원이 이루어지는 서원 불단이다.

만다라 봉안식 때 이 좋은 자리에 협소한 장소 때문에 더 많은 보살님들을 모시지 못한 것을 지광 정사님께서 못내 안타까워 하셨다.

지광 정사님께서 "자기 마음 그릇에 따라서 복을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부만다라를 모신 서원당에서 모든 보살님들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서원하셨다. 나 역시도 복을 많이 지어서 많이 배우고 느껴서 복 그릇을 넓혀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성화사 김경인 통신원

총지확대경

기부문화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댓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한다. 그같은 의미에서 '무상보시' 즉 '버리는 보시'가 진정한 기부문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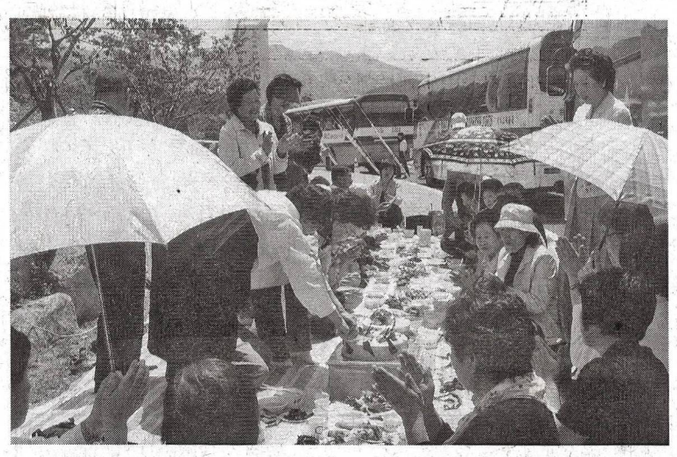
최근 '국민여동생' 문근영은 독서운동 단체 '행복한 아침독서'에 지난 3년 동안 1억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근영은 그동안 이 일을 비공개로 해왔다. 이는 소속사 역시 몰랐던 사실이다. 공개적으로 기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몰랐다 한다. 오래전부터 '기적의 도서관'에 후원금을 기탁하고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에 아이들 공부방을 마련해 주는 등 남몰래 다양한 선행을 해온 문근영은 이외에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 소아암 백혈병과 같은 고액의 수술비 기부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선행을 펼쳐왔다.

몇몇 연예인들의 평상시 선행이 외부로 알려 지면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이효리다. 만취한 남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귀가까지 시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효리의 도움을 받은 남성이 한 일간지 독자투고에 감사의 글을 올려 외부로 알려진 경우다.

이와는 반대로 단발성 홍보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에 따라 스타들의 선행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물론 연예인들이라고 모두 선행에 앞장서는 것은 아니다. 또 선행이라고 하여, 다 같은 선행은 아니다. 일부 홍보를 목적으로 그 의도가 어긋나고 의미가 퇴색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잘못된 관습으로 연예인들의 진심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선행을 숨기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다 한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말이 있듯 이들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알려, '선행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선행은 연예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정치인들의 기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일 게다. 이렇듯 진정으로 버리는 보시행이야 말로 아름다운 사회를 가꿔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종단 외호단체로서 역할 다할 것"

충청전라-서울 경인 교구 스승의 날 행사



▲충청전라교구의 스승의날 행사

스승의 날을 맞아 충청전라교구와 서울경인지구 교도들이 해당교구 스승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종단과 교화발전에 헌신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충청전라교구는 5월 15일 지리산 일대에서 기로스승님과 현직 스승님들을 모시고 점심공양을 올리고 나들이를 함께 했다. 이와함께 신정회 일동은 종단의 외호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인교구 김은숙 지회장과 각 사찰 신도회장 등 교도들도 같은 날 법장화 기로스승님과 서울경인 교구장 법등 정사 등 스승 26분께 공양을 올리고 올림픽 공원을 산책했다.

행사 후엔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아비' 공연(총지사 손경옥 보살 출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세계가 하나되는 부처님 세상"

복지재단 중국, 미얀마에 피해복구 지원금 전달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승)은 지난 28일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중국 쓰촨성과 싸이클론으로 재앙을 입은 미얀마에 피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총지종 복지재단은 "중국과 미얀마에 피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한 것은 차별없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비록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불법의 세계에서 비추어 볼 때 자연과 인간은 하나인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자연과 인간을 존중하고 보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향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한 교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인과 여성, 어린이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국제복지사업으로 자연재해 및 인재로 피해를 당한 국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림방

-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반기 49일 불공을 봉행합니다.
- 6월 2일부터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 6월 9일 부산 정각사가 문화센터, 불교대학을 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개천사	경 원	5. 20	10,000	단음사	박호열	5. 22	10,000	밀인사	이연수	5. 27	10,000
개천사	정법수	5. 20	10,000	단음사	박주열	5. 22	10,000	밀인사	무명씨	5. 28	10,000
개천사	이희권	5. 23	20,000	단음사	유가해	5. 22	10,000	밀행사	석우성	5. 8	30,000
개천사	박상순	5. 23	10,000	단음사	안 성	5. 22	10,000	백월사	박인철	5. 22	5,000
개천사	무명씨	5. 28	5,000	단향사	행원심	5. 6	10,000	백월사	박인국	5. 22	5,000
관성사	김철우	5. 6	10,000	단향사	이지은	5. 6	10,000	백월사	이갑진	5. 26	10,000
관성사	해 정	5. 16	10,000	단향사	공철봉	5. 8	10,000	법천사	시 정	5. 21	10,000
관성사	정법계	5. 16	10,000	만보사	민순분	5. 14	10,000	법천사	원만원	5. 21	10,000
관성사	황성녀	5. 19	20,000	만보사	이종구	5. 14	5,000	법천사	박말조	5. 21	5,000
관성사	이혜원	5. 30	5,000	만보사	지 성	5. 20	10,000	벽룡사	이희숙	5. 7	10,000
기로원	상지화	5. 21	10,000	만보사	승효제	5. 20	10,000	벽룡사	원 당	5. 13	10,000
기로원	불멸심	5. 21	10,000	만보사	전문희	5. 23	10,000	벽룡사	묘심해	5. 13	10,000
기로원	법장화	5. 21	10,000	만보사	이현진	5. 23	20,000	삼밀사	원 송	5. 9	10,000
기로원	대자행	5. 21	10,000	만보사	정덕순	5. 30	5,000	삼밀사	인법계	5. 9	10,000
기로원	대 관	5. 21	10,000	밀인사	이재호	5. 22	10,000	삼밀사	원 송	5. 30	10,000
기로원	총지화	5. 21	10,000	밀인사	신대식	5. 26	5,000	삼밀사	인법계	5. 30	10,000
기로원	수증원	5. 21	10,000	밀인사	이혜성	5. 26	5,000	선립사	심지장	5. 16	10,000
기로원	자선화	5. 21	10,000	밀인사	신동희	5. 26	5,000	선립사	정복지	5.16	10,000
단음사	이규성	5. 13	3,000	밀인사	신동의	5. 26	5,000	선립사	이순복	5. 27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5. 22	50,000	정심사	박옥란	5. 26	20,000				
수인사	공경원	5. 27	10,000	정심사	오윤보	5. 30	5,000				
수인사	한애숙	5. 29	30,000	지인사	허성동	5. 21	20,000				
수인사	김봉기	5. 30	10,000	지인사	연등원	5. 26	10,000				
실보사	조순애	5. 16	10,000	총지사	최순전	5. 10	98,000				
실보사	송희준	5. 16	10,000	총지사	이인성	5. 26	30,000				
실지사	김기봉	5. 3	5,000	통리원	지 정	5. 21	20,000				
실지사	한수연	5. 3	5,000	혜정사	최영례	5. 14	10,000				
실지사	송우섭	5. 6	5,000	화음사	강순란	5. 7	5,000				
실지사	이화수	5. 20	10,000	화음사	강승훈	5. 28	10,000				
실지사	정우석	5. 21	10,000		정희연	5. 14	10,000				
실지사	정경자	5. 27	5,000		이숙남	5. 20	30,000				
운천사	김숙련	5. 8	20,000								
정각사	김문수	5. 8	10,000								
정각사	구정희	5. 16	20,000								
정각사	변순개	5. 21	5,000								
정각사	박수빈	5. 22	10,000								
정각사	자비회	5. 28	30,000								
정각사	윤선자	5. 28	1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자신의 심지를 굳건히 하라



오늘부터 아니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고 뜯나니.
말이 많아도 비방을 받고
말이 적어도 비방을 받고
말이 없어도 비방을 받고……
비방 받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다.

비방만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사람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방도 속절없나니,
모두가 제 이름과 이익을 위한 것뿐.

- 법구경

도(道)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선객이 노사(老師)에게 물었습니다.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왜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나'가 있기 때문이다."
"저에게 '나'가 있기에 보지 못한다면 스님께서는 보십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 더욱 보지 못한다."
"저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누가 본단 말이냐."



-벽암록(碧巖綠)에서
- 맹란자 / 수필가

땅에서 넘어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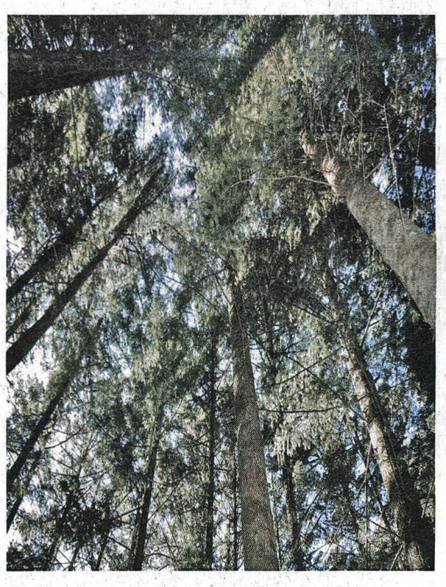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난다.
-고려 보조국사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현실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발을 땅에 붙이지 않고 허공에 설 수 없듯이 인간의 행복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대지에서 온갖 꽃이 피어나고 강물이 온갖 생명을 품듯이.

- 윤소암/ 시인, 평론가

이달의 명상 "입차문래 막존지해"



……평전화상이 말씀하시길 '신령스러운 광채(神光)가 혼매(昏昧)하지 아니하여 만고(萬古)에 훌륭한 법(希有)이니, "이 문을 들어서면(入此門來)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莫存知解)!"' 라고 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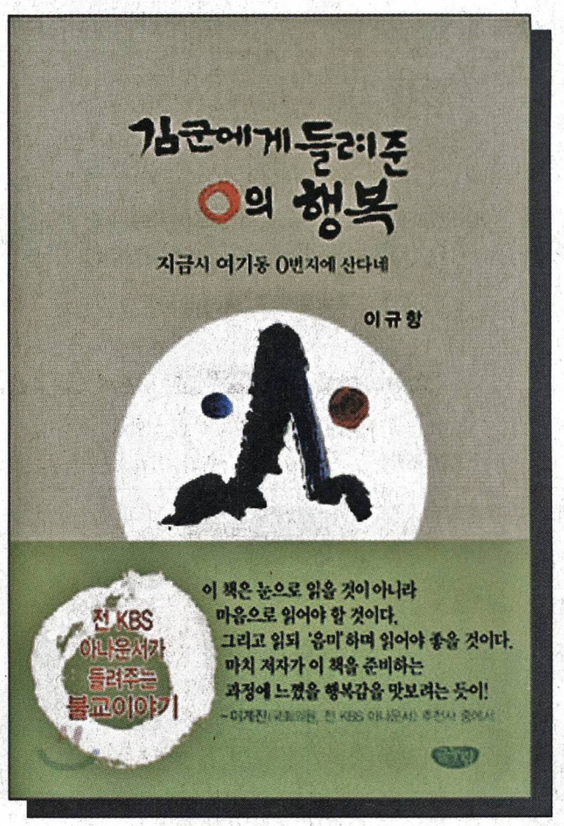
또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유심(有心)으로도 구할 수 없으며, 무심(無心)으로도 얻을 수가 없으며, 언어로써 설명할 수 없으며, 적묵(寂默)으로도 통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니…

- 서장(書狀) 중에서



신간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



전 KBS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 이규항 지음/글누림/값9,000원

이 책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읽되 '음미'하며 읽어야 좋을 것이다.
마치 저자가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느꼈을 행복감을 맛보려는 듯이!

- 이계진 (국회의원, 전 KBS 아나운서) 추천서 중에서

0의 행복은 행복의 황금률이다!
붓다의 깨달음을 '음식의 맛과 0'의 키워드로 풀다!

깊은 사려와 직관에서 비롯한 영혼의 울림
-석성우 스님 (불교TV회장)

석가모니부처님의 밥의 향기와 0의 행복 가득 담긴 이 책을 보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광수 (중국 북경방송 CRI교수)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죠. 이 책은 그 해답을 당신께 제시합니다.

-손범수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나의 마음자리는 어디일까를 가늠하며 한번더 꼼꼼히 읽어볼까 합니다.
-정은아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세계속의 불교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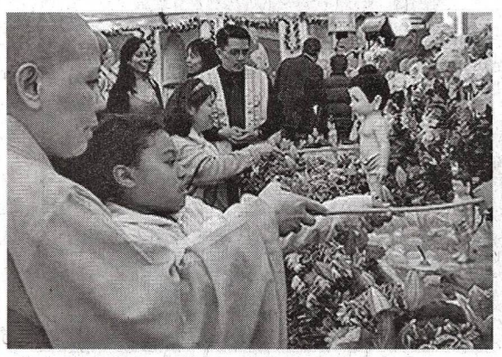
서양의 불교(The Buddhism of Western)

이제 불교는 동양의 종교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서구 지성인의 양심으로는 불교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불교가 서양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에 벌써 지중해 연안과 그리스 로마에까지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불교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부터였으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서양종교의 선교사들이 식민 정책의 후광을 업고 주입시켰던 아시아에서의 선교와는 달리 불교는 지금 서양인들 스스로의 자각과 관심에 의해 불교를 연구하고 전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의 서양은 활발한 불교연구가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1. 영국의 불교

대영제국 식민지인 인도, 버어마, 스리랑카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소승불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1920년대쯤에서는 스즈끼 박사의 선(禪)에 관한 책들이 출현함으로써 영국불교는 선불교가 급성장하게 되고 선불교와 더불어 대승불교가 서서히 영국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불교는 완전히 수행위주의 불교가 되었으며, 불교가 영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영국불교 단체의 주소록에 의하면 약30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본사(本寺)격에 해당되는 수도원으로부터 집 한 채에 이르는 포교당 내지는 선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교대학도 하나 있고 전문 불교서적만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만도 대여섯 군데나 된다고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실제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영국인들이 불교를 탐색하는 데는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했다. 결국 영국불교는 자리를 잡았다.



▷런던의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관불의식

현재 영국불교는 테라바다불교, 대승불교, 티벳불교가 연합하여 하나의 불교 통합 운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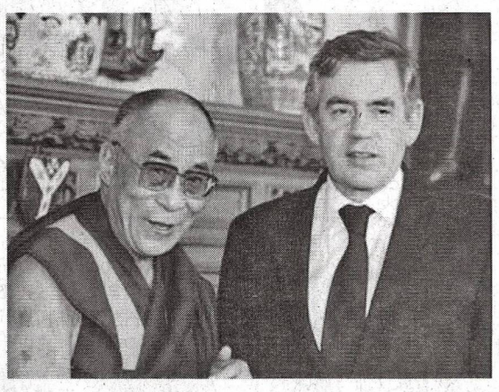
불교학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여러 종파들의 젊은 재가불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 특히 명상과 연구, 정신적 경험 등을 주제로 한 강의·토론·세미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의 불교는 방송 매체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불교 서적이 포켓판의 책으로 값싸게 나오고 있어 불교적 사유에 의한 영국내 변화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불교는 불교를 처음 접했던 1880년대 이후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여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불교 서적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대중 속의 불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프랑스의 불교

프랑스는 카톨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이다. 인구 약5천5백만 가운데 형식적이나마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이다. 대부분의 프랑스인이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중산층과 젊은세대의 절대 다수가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공식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달라이라마와 영국총리 고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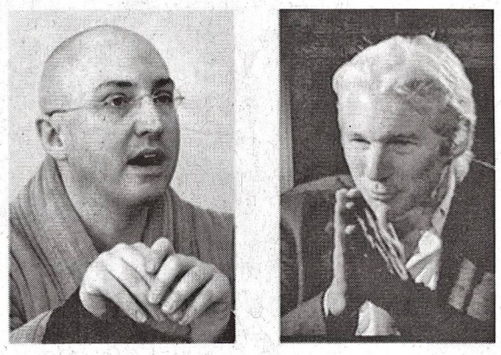
프랑스의 불교는 인도차이나에서 온 이민 불교가 현재 막강하다. 프랑스인들은 처음에는 이론적인 연구가 주가 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직접 수행하는 불교인구가 나타났다.

60년대부터 프랑스에서는 선센터와 티벳불교 센터가 생겼으며 80년대에는 수행하는 불교인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85년 7월경 세계적 권위지인 "르 몽드"에서는 마침 스위스에 와 있는 달라이라마와의 인터뷰 기사를 전면 게재하는가 하면, 티벳불교를 4회에 걸쳐서 소개하는 등 불교 붐을 일으킨 바 있다.

영국에 비해서 불교단체 수는 적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만만치 않다. 파리의 쁠라스디탈리에 본부가 있는 선센터는 지방에 큰 성 을 매입하여 전용 수도장으로 사용하는 등 연간 3천여명 이상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본부 산하에 약 40여개의 선센터가 프랑스 여기저기에 있고 약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선센터는 자영 출판사까지 운영하면서 쉴새없이 불서를 간행하고 있다고 한다.

3. 미국의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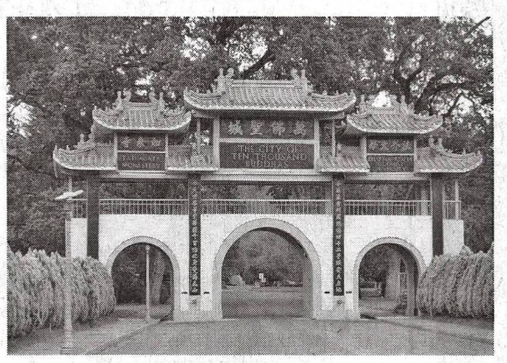
▷현각스님과 리차드기어

현재 200만명 정도의 불교신자가 있으며 한국불교보다 먼저 소개된 인도의 요가, 중국의 선, 일본의 좌선, 등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불교의 선도 큰 매력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는 교민을 대상으로 하여 염불적인 불교와 미국 본토인을 위한 선불교가 병존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포교활동을 벌인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 숭산 ,행원스님이 처음이다. 그 이전에도 일붕, 경보스님 등이 포교활동을 벌여 큰 관심을 일으킨 적도 있다.

4. 이탈리아의 불교

카톨릭의 총본산인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가 수도 로마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신부나 수녀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산스크리스트어를 서구에 알린 것도 신부였으며, 인도나 페르시아의 유명한 경전을 라틴어로 옮긴 것도 신부들에 의해서였다. 이처럼 불교가 단편적으로나마 바티칸에 알려진 것은 꽤 오래 된다.

이탈리아의 불교는 소수이나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종교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1970년대에 이탈리아 불교협회가 조직되었고 현재는 로마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 선센터와 티벳불교 포교당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외불교를 수업하러 나간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켈리포니아 탈마지사원

〈http://cafe360.daum.net/__c21__〉

총지동의보감

오늘도 어지러우세요?… 여성들의 피할 수 없는 적, 빈혈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사춘기 시절 매달 경험하는 생리현상 또는 결혼과 임신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라면 생리출혈 기간이나 임신 중에 누구나 한번쯤은 어지럼증, 피로 혹은 두통과 더불어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빈혈"로 인해서 적잖은 괴로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하얗게 보인다든지 운동이나 기타 활동 등 몸의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호흡곤란과 함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져나가기는 것도 이 증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빈혈은 의학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거나 숫자가 적은 상태를말하는 데 대개의 경우 어지러움을 동반하지만 반드시 어지럽다고 빈혈이라고 진단하지는 않는다.

빈혈의 증상으로는 운동시 호흡곤란이 오거나 맥박이 심하게 뛰고 쉽게 피로하며 두통, 귀가 울리는 증상을 동반한다. 빈혈의 원인은 무수히 많으며 그 증상의 정도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은 철결핍성 빈혈로 주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과 같은 자궁내 질환으로 인해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임신기간동안 산모가 태아의 영양공급으로 인해서 철분 부족현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위장관 출혈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출혈이 장기화될 경우 안색의 창백함과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등의 전신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의 원인을 '혈허' 즉 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우리 인체는 무형의 기와 유형의 혈이 있어서 오장육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체 각 기관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조절해준다. 이때 혈은 기운을 따라 순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의 회복을 위해서는 혈액의 보충과 더불어 기운의 회복도 함께 유지시켜줘야 한다.

빈혈의 치료법은 원인에 따라서 다르며, 보통 철분 부족에서 오는 빈혈은 철분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개선된다. 한방에서는 녹용, 당귀, 천궁 등의 약재 통해서 적혈구의 형성을 돕고 혈색소의 양을 늘려서 증상을 완화시킨다. 특히 임신 5개월 이상 되면 빈혈예방을 위해서 철분제를 복용하는데 위장이 약한 여성들에게는 소화장애나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한방치료를 통해서 조혈기능을 높이고 혈액생성을 도와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더불어 고단백 중심의 충분한 영양섭취와 균형 잡힌 식습관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죽비소리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다섯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성실하게 재산을 경영하기를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일찍 일어나 노비를 단속하여 때맞추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요,
셋째는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은 것이요,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부모가 병이 들면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여 드리는 것이다.

-육방예경六方禮經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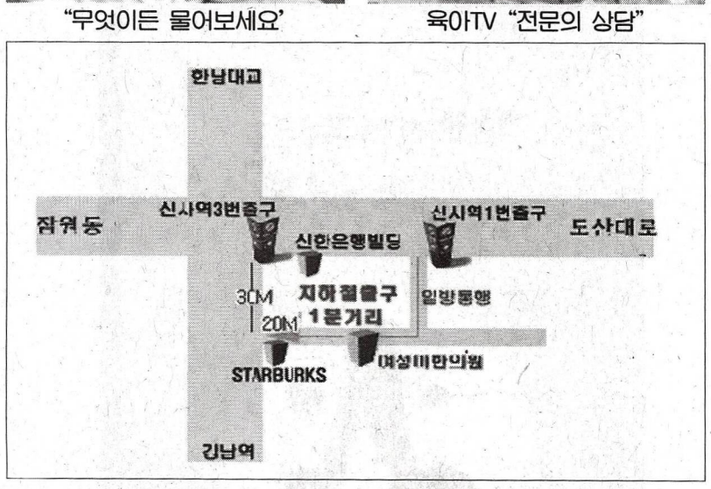
자경단(子經丹)
좀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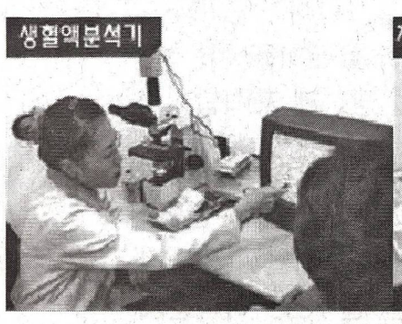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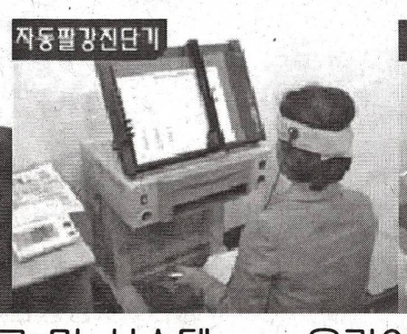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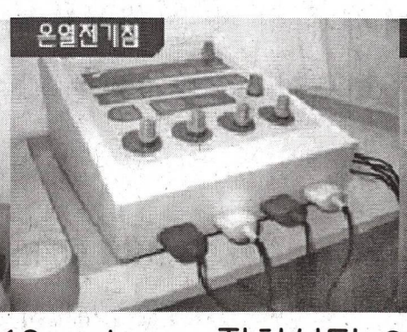
육아TV "전문의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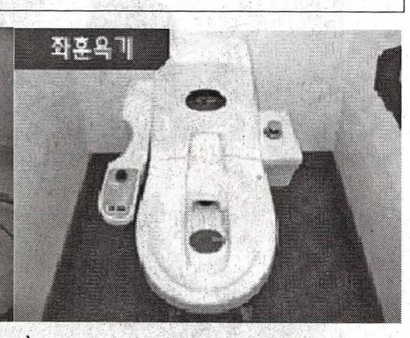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지상설법

수행(修行), 행복으로 가는 길



선 도 원
〈총지사 주교〉

▶수행은 왜 하는가?

한마디로 해탈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없으면 해탈도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우선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은 모두가 인과응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생을 생각하고 내생을 바라보며 금생을 알아갑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요 악인악과(惡因惡果)라는 인과의 법칙을 확실히 믿고서,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나'의 지은 바에 대한 과보라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취합니다. 고난에 처하여 남을 원망하거나 회피만 하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업(緣業)입니다.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인연과 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부모를 만나고 부부가 되고 자식을 두는 것도 인연이요 업이며 괴로움을 받는 것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모두가 인연과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영화를 누리거나 고통을 받는 것 모두는 과거에 심어놓았던 씨(因)가 바로 이 시간 전까지의 여러 가지 주변조건(緣)과 노력(業)에 의해 맺어진 결실(果)일 뿐입니다. 단순히 금생의 일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능히 기억할 수 있는 금생보다는 감지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전생의 인연과 업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다가 권좌에서 물러난 후 비난을 받으며 불명예 속에 사는 사람, 처음에는 죽도록 사랑하던 연인이나 부부가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고 갈라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두가 인·연·업·과(因緣業果) 곧 인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눈길을 옮기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연(善緣)도 만나고 악연(惡緣)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인연들 중에는 절대적인 선연도 절대적인 악연도 없고, 절대적인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因)과 연(緣)이 잠시 합하여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연을 가꿉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곧 연(緣)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가짐과 자세, 곧 굳건한 인(因)으로 열심히 노력하면(業) 또다시 좋은 결실(果)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현실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 말로 인연법을 따르는 참다운 수행자입니다.

삶의 과정은 인연과 업의 결과

셋째는 무소유의 도리를 깨우쳐 만족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은 꿈과 같고 불타는 집속에 사는 것과 같고 사대로 구성된 몸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착을 비우고 소유욕을 비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무소유(無所有)의 정신을 기르고 무소구행(無所求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곧 구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괴로움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더욱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내 사람, 물질도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욕구는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끌어당기니 경쟁심이 불붙고, 경쟁을 하다가 이기면 승리했다고 뽐내고, 지게 되면 실망과 패배감에 젖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놀음입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놓아버려야 합니다. 죽이면 죽, 밥이면 밥, 형편대로 인연에 맞추어 살 일이지 무리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하늘은 자기 먹을 것 없는 사람을 내어 놓는 법이 없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天不生無緣之人 地不長無名之草)는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쓸 만큼 쓰면 그뿐, 더 이상 탐착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는 것을 애써 막으려 할 것도 없고 가는 것을 굳이 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애써 구하려는 생각이나 소유하려는 생각 없이 인연 따라 마음을 편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여울

◇ 전생 일을 알려면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전생 일을 알며, 지극한 도를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의지를 굳게 가지면 지극한 도를 알 수 있다. 거울을 닦아 먼지가 없어지면 밝아지는 것과 같이, 탐욕을 끊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 전생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도를 행하고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선이며, 의지가 도와 계합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사십이장경〉

◇ 힘 세고 밝은 것

"어떤 것이 힘센 것이며, 가장 밝은 것입니까?"

"욕심을 참는 것이 힘센 것이다. 욕심을 참으면 악한 마음도 들지 않기 때문에 편안함과 씩씩함을 겸하게 된다. 또 참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으므로 반드시 남의 존경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음의 때가 다 없어져 깨끗해지니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시방세계에서 생긴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듣지 못하는 것이 없이 일체지를 얻은 것이니 가장 밝은 것이다." 〈사십이장경〉

◇ 도를 얻으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에 얽매이면 마음이 흐리고 어지러워 도를 볼 수 없다. 깨끗이 가라앉은 물을 휘저어 놓으면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너희들 사문은 반드시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의 때가 씻기면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를 보는 사람은 마치 횃불을 가지고 어두운 방안에 들어갔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환히 밝아지는 것과 같다. 도를 배워 진리를 보면 무명은 없어지고 지혜만 남을 것이다.

내 법은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고, 행함이 없이 행하며, 말함이 없이 말하고, 닦음이 없이 닦는다.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게는 가깝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갈수록 아득할 뿐이다. 무어라 말할 길이 끊어졌으며, 사물에 걸릴 것이 없으니, 털끝만치라도 어긋나면 잃기도 잠깐이다.

천지를 볼 때 덧없이 생각하고, 세계를 볼 때도 덧없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볼 때는 그대로가 보리라고 생각하라.

이와 같이 도를 알면 얻기가 빠를 것이다. 몸 안에 있는 사대가 제각기 이름을 가졌지만 어디에도 '나'가 없다고 생각하라. 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허깨비와 다를 게 무엇인가.

사람이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 명예를 구하지만 명예가 드러날 만하면 몸은 이미 죽고 만다. 하잘것없는 세상의 명예를 탐하느라 도를 배우지 않고 헛수고만 하니, 마치 향을 사루어 그 향기를 맡기는 했지만 향은 이미 재가 되고 만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몸을 해치는 불이 명예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사십이장경〉

◇ 칼날에 묻은 꿀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한번 입에 댈 것도 못되는데 어린애들은 그것을 핥다가 혀를 상한다. 사람이 처자나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하다. 감옥은 풀릴 날이 있지만 처자는 멀리 떠날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과 사랑은 어떠한 재앙도 꺼리지 않는다.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깊이 깊이 빠져든다. 그러므로 이를 범부라 이르고 여기에서 뚫고 나오면 티끌을 벗어난 장부라 한다.

모든 욕망 가운데서 성욕보다 더한 것은 없다. 성욕은 크기의 한계가 없는 것이다. 다행히 그것이 하나뿐이었기 망정이지 둘만 되었더라도 도 닦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애욕을 지닌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화를 입게 된다.

어떤 악마가 내게 미녀를 보내어 그 뜻을 꺾으려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가죽 주머니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담은 자여, 너는 무엇하러 왔느냐, 물러가라, 내게는 소용이 없다!'

악마가 도리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도의 뜻을 물었다. 나는 그를 위해 설명해 주었더니 그는 곧 눈을 뜨게 되었다." 〈사십이장경〉

◇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도 닦는 사람은 마치 나무토막이 물에 떠서 물결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 양쪽 기슭에도 닿지 않고, 누가 건져 가거나 소용돌이에 빠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는 틀림없이 바다에 들어갈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정욕에 빠지거나 온갖 그릇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그는 반드시 도를 이룰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의 생각을 믿지 마라. 너희들 생각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여인과 만나지 마라. 여인을 만나면 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아라한이 된 뒤에라야 너희들 뜻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을 마주 보지 말고 함께 이야기도 하지 마라. 만일 함께 이야기할 때는 똑바른 마음으로 '나는 출가 사문이다. 흐린 세상에 태어났으니 연꽃이 진흙에 더렵혀지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라.

나이 많은 여인은 어머니로 생각하고 손위가 되는 이는 누님으로, 나이 적은 이는 누이동생으로, 어린이는 딸과 같이 생각하여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면 부정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도 닦는 사람은 마른풀을 가진 것과 같아서 불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수행인의 욕망의 대상을 보거든 마땅히 멀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생각이 그치지 않음을 걱정한 끝에 자기의 생식기를 끊으려 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타이른 적이 있다. '생식기를 끊는 것은 생각을 끊는 것만 못하다. 음란한 생각이 쉬지 않고서 생식기를 끊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들은 애욕으로 인해 걱정이 생기고 걱정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에서 떠나버리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십이장경〉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 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 료 시 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알기쉬운 밀교상식<14>

육대체대(六大體大) ①

밀교의 우주관

밀교에서는 우주와 인간을 여섯 가지의 요소로 나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도 어리석은 중생도 모두 이 여섯 가지의 요소로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섯 가지의 요소는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식(識)을 말하는데 이것을 특히 육대라고 한다.

'대(大)'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러한 요소가 우주 간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간의 만법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모두 육대로써 체(體)로 삼기 때문에 이 육대는 우주의 실체이며 제법연기의 본원(本源)이다. 육대연기(六大緣起)라는 밀교의 우주관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육대 가운데에서 지·수·화·풍은 옛날부터 사대(四大)라고 하여 모든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보았다. 지는 딱딱한 성질, 수는 습한 성질, 화는 뜨거운 성질, 풍은 움직이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요즘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주의 구성요소인 원소를 대별하여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밀교에서는 이 사대에 공간적인 개념인 공을 더하고 우리의 의식작용인 식을 포함하여 육대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의 총체인 이 육대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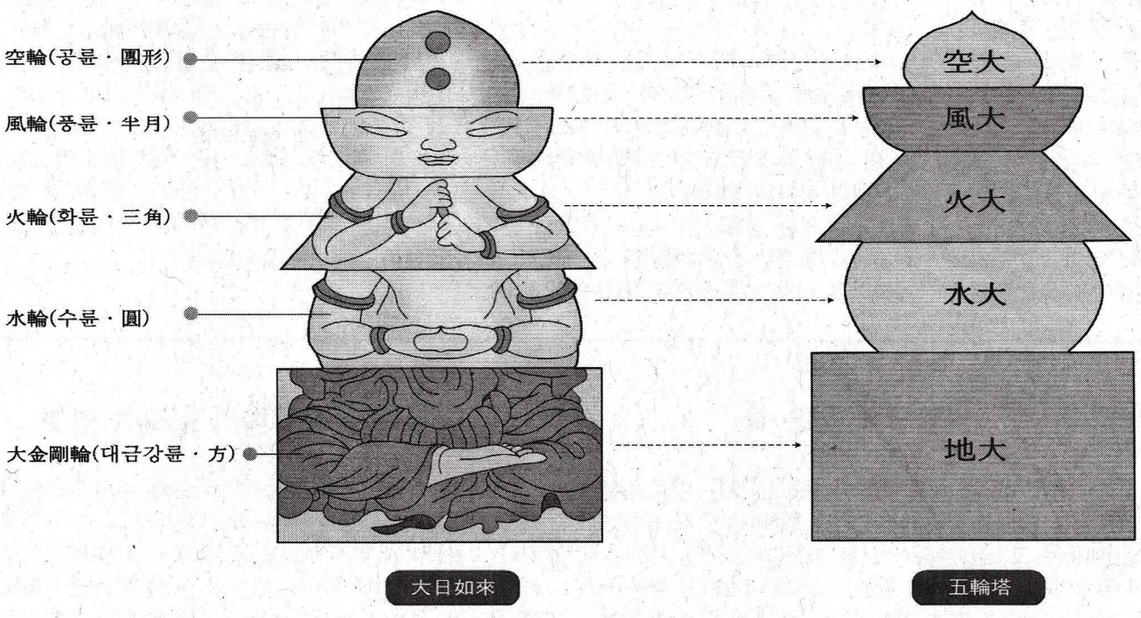
사람의 인체를 육대로 분석해 본다면 신체는 지대라고 할 수 있고 신체 내의 수분은 수대, 체온은 화대, 호흡이나 움직이는 기운은 풍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공대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작용은 식대가 된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지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물을 포용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만물로써 중생들을 살리고 기르는 것처럼 지대는 모든 것을 함장(含藏)하고 기르는 덕행을 구족하고 있다고 본다.

풍대는 탐진치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에 비유된다. 마치 더운 여름날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심신을 식혀주는 것처럼 풍대도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해탈풍 혹은 청량풍이라 한다. 그리고 바람의 움직이는 성질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인연의 덕에 비유되어 수행에서도 그 작용을 드러내는 것은 풍대에 의해서라고 보는 것이다.

공대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융합하을 수 없는 것처럼 지혜의 힘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성숙하게 하여 불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육대는 우주의 실체
제법연기는 육대에 의하여 전개된다

그래서 지대를 우리의 보리심에 비유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리심은 무량한 덕행을 지니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기르는 품덕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무량한 불덕을 펼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수대는 대지의 모든 생물이 물이 적셔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감로법수(甘露法水)가 없으면 우리의 보리심의 종자가 싹터서 자랄 수 없는 것에 비유된다.

화대는 모든 것을 성숙하게 하는 불의 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혜를 상징한다. 불이 없으면 음식을 익혀먹는 원융(圓融)의 덕성을 상징한다. 사대가 공대에 의지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상도 공성(空性)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식대는 우리의 의식을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수·화·풍의 오대는 모두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감지되고 존재의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대가 있어야 비로소 이 세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화령(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불교설화 <23>

영원조사의 사제 간 인연
- 금정산 범어사

조선 중기,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명학동지(明學同知)라는 이름의 그는 금정산 범어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마을을 지나 산길을 들어서는데, 남루한 초가집을 주변으로 서기(瑞氣)가 어리는 게 보였습니다. 곡두에 홀린 듯 그 집에 들어서니 갓난애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학스님은 방 안의 산모가 자신의 인기척을 들을 수 있도록 헛기침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불연(佛緣)이 깊은 듯 하니 부디 잘 길러주시면 몇 년 후 소승이 데려가겠습니다."

아기를 낳느라 지칠 대로 지친 산모였지만, 명학스님께 아기를 부처님 전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년 후 명학스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아이를 데려와 상좌로 삼았다. 어린 상좌는 매우 명민해 제법 좋은 법기(法器)가 될 싹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상좌에게 땔감을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동자승은 저물녘 빈 지게로 돌아왔습니다.

"온종일 빈둥빈둥 놀다가 빈 지게로 돌아왔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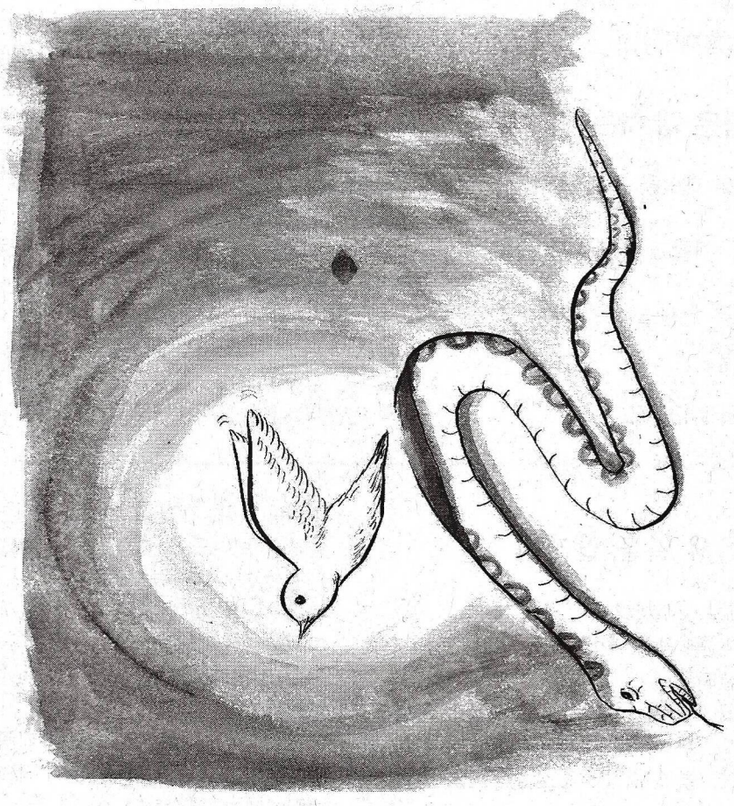
동자승의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놀다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베었더니 나무에서 시뻘건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나무를 벨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상좌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동자승은 그 길로 범어사를 떠나 홀로 금강산 영원동(靈源洞)으로 들어가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동자승이 바로 조선 중기 때 선지식으로 이름날린 영원조사(靈源祖師)입니다.

조사가 어느 날 선정삼매에 들었는데, 옛 스승의 사후 죄를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사가 신통력으로 명부(溟府)에 이르니, 생전에 탐심(貪心)으로 재물을 모으는 데만 열을 올린 스승이 구렁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곧바로 범어사에 도착하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전고(錢庫, 재물을 모아둔 창고)에서 똬리를 틀고



미워하지 않는 게 지극한 道
탐심으로 구렁이 보를 받은 스승

팥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재물창고 앞에 이르러 스승의 옛 이름을 세 번 부르니 구렁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사는 구렁이를 향해 큰 절을 올린 뒤 독경(讀經)을 하고 절 밖으로 나오니, 구렁이도 조사를 뒤따라왔습니다.

시냇가에 이른 조사는 구렁이를 향해 법문을 설했다.

"스승께서 이렇게 업보를 받은 것은 전생에 탐심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집착을 버리십시오."

법문을 마친 조사는 곧바로 큰 돌을 들어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죽어가는 구렁이의 몸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와 조사의 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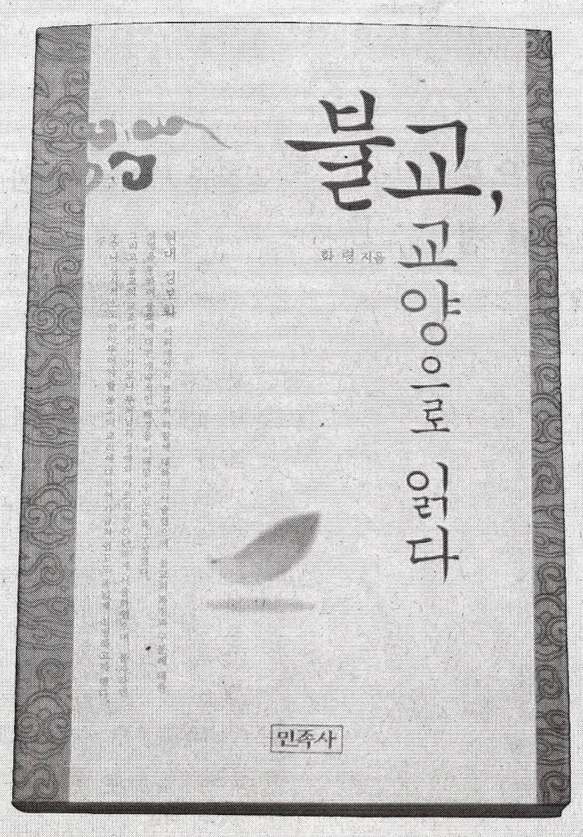
조사는 금강산으로 가던 중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조사는 품안의 새를 젊은 부부에게 건네며 열 달 후에 옥동자를 분만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 아기를 데려가겠노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는 약속대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동자승이 되자 조사는 전생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며칠 후 동자승은 손에 도끼를 들고 조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생의 숙업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 때 벽 창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조사가 나타나며 한마디 일렀다.

"스승님, 이제 숙업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동자승은 힘없이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숙업을 모두 소멸한 동자승은 그때부터 더욱 용맹정진하여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동자승이 바로 우운조사(雨雲祖師)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일화는 방하착의 가르침을 일깨워줍니다. 살다보면, 더러는 맘이 아프다 못해 사무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릿한 상흔이 가슴에 남는다 해도 이는 미움이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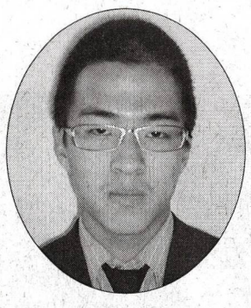
〈불교, 교양으로 읽다〉 출간 안내

화령(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지음 / 민족사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이 책은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간략히 서술하고 불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불교 교리에 대해 쉽고 폭넓게 설명했다.

총지문예 서로 다름을 위한 똑같은 한 발짝-양성평등(兩性平等)



김 태 하
동해중 3-6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고도 성장을 이뤄냈다. 교통, 통신의 발달, 음식문화의 발달, 직업의 다양화 등 현대사회를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둔 지 오래다. 지구가 점점 좁아진다는 둥,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통화를 하는 둥, 벌써 일상생활에서 그 가치를 실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들도 만만찮다. 그에는 교통체증, 환경문제, 빈부격차…등 발전한 데 비해 천문학적으로 많은 문제들과도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 현대사회에, 정확히 말해 실생활에 번번이 나타나는 가장 골칫거리로 손꼽히는 문제가 바로 '양성평등'이다.

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어 이슈화되는 이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도 직접 맞닥뜨리면 불쾌해하기 십상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과, 선입견 등은 정당하지 못한 것임이 분명한데 얼버무려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세심히 시간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먼 옛날부터 '양성평등'이란 개념은 없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틀 안에 갇혀 여자에 비해 우람한 체격과 힘을 가진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세심하고 차분한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는 이야기에서부터 꾸준히 전해 내려오는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생활습관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양성평등의 개념은 '양성이 평등함으로써 한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무시 받지 않는 것'이다.

그에 어긋나는 행동인 즉, 불평등의 예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다. 요새는 모두가 보듯 직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남자요리사, 남자간호사, 여자축구선수 같은 직업들이 쉴 새 없이 눈에 띄기 마련이다. 양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예들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저 직업들을 보라.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그 의미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적잖은 찜찜함을 느낄 수도 있는 단어들이다.

다음 나올 불평등의 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중 여자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두 번째 예 역시 직업에 관련한 것이다. 필자는 아직 학생이라 이를 직접 보고 느껴왔다. 성격상 당당함에 관하여 설명할 수도 있는 예지만 그것으론 어느 정도 합리화 시킬 뿐이다. 두 번째 예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라는 것이 틀림없음을 표하고 싶다.

그러나 양성불평등의 예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의 예로써는 남자가 미용실에서 일을 함, 과거에 주로 여성들이 종사하던 요리사직업 중 호텔의 일류 요리사들은 거의 남자라는 점, 여자축구의 발전, 힘과 기술을 요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여자가 타이어를 몇 개씩 들고 다니는 것들처럼 점점 실현화 되고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의 개선의 예 중 하나이다. 서양은 남녀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여성우대 시설과 제도가 있다. 물론 서양문화만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21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이 잘 갖추어져 실현 되어있는 나라가 되어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양성평등을 깊게, 분명하게 실천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실천하려고 양성이 서로 노력한다면 더욱더 쉽게 이루어 질것이다.

고려시대 유교로부터 일어난 남녀차별이 현대에는 좀 없어졌다 할지라도 아직 재연되고 있다. 사회에서도 여자, 남자 편견은 없어졌지만 오래 사신 어른들께서는 아직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다. 학교에서도 그렇듯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갖은 노력, 가늠 하지 못할 만큼의 시간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끝없이 노력하여 해소시켜야만 함은 틀림없이 분명하다.

나는 이 양성평등 글짓기를 하며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필히 생활 속에 새겨 놓아야 할 문제라는 것도 알았다.

과거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이여! 예의를 잃더라도 양성평등은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향상시키면 예의가 발전될 것이며 동방의 변화와 창조, 그리고 예의와 평등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침 바람에도…~♣

아침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나를 이끈다.

밤새 울렁거리던 가슴이
왠지 몰랐다.

바람에 끌리어 밖으로
나가 보니 거기 그렇게
그리움이 슬렁이고 있었다.

아하!
꽃내 지천인 오월에도
사그러 들지 않는 아픔이 있었다.

거칠게 비라도 내려 주길 바라며
능청스럽게 푸르기만 한 하늘을
올려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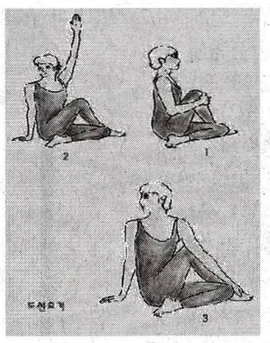
- 총지사 일송정

이달의 생활요가

매일하면 좋은 요가 자세 (5)

좌상비틀기체위

Ardha Matsyendrasana



이 체위법은 좌우하복부에 강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좌골신경계의 혈관확장에 따른 성기능 향상과 배뇨.배변을 촉진하고 방광염을 예방한다. 특히 간장과 신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고, 좌우로 내장을 비틀기 때문에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위장기능을 활성화한다.

〈행법〉

1)왼쪽 다리는 펴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자세로 앉는다.

2)그림 2번처럼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바깥쪽에 넘겨 세우고, 왼쪽발꿈치는 엉덩이 안쪽으로 밀착시킨다.

3)허리를 곧게 펴고 오른쪽 팔을 오른쪽 엉덩이 뒷쪽 바닥에 지탱하고,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왼쪽 팔을 오른쪽 무릎 바깥으로 기대어 오른쪽 발등에 손이 닿도록 뻗어준다.

4)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린다. 시선도 오른쪽으로 향한다. 이 자세를 20~30초간 유지하다 다시 교차하여 3~4차례 행한다.

〈건강효과〉

골반교정과 신장.간장기능을 강화하고, 생리불순,갑산성질환,불임,생리통.산후통증에도 효과적이다. 대장염.방광염.변비.전립선질환.위십이지장질환에 좋고. 굳어있는 목뼈.어깨뼈.척추.골반을 교정하고 유연하게하며, 디스크.류머티스.골다공증.등뼈통증.요통에도 효과적이다.

〈미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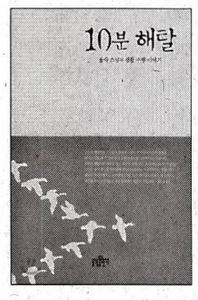
허리,복부,대퇴부비만 예방

*모든 자세의 첫 단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들어가고, 자세완성후 천천히 내쉰다.

이달의 추천도서

10분 해탈 :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

용타 스님 지음/ 불광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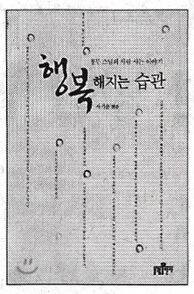
용타스님의 두 번째 수행 에세이. 이 책은 월간 「불광」에 3년간 연재한 용타스님의 생활 수행 이야기를 엮은 것으로, 저자가 계발한 집단수행프로그램의 적용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선불교를 바탕으로 현대 심리학, 상담학을 도입하여 '동사섭'이라는 집단수행프로그램을 계발하였다.

'동사섭'은 불교의 사섭법[四攝法 : 布施攝(남김없이 베풂)·愛語攝(따뜻한 말로 도움)·利行攝(이로운 일로 도움)·同事攝(그들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함께함)] 중의 한 개념으로, 동사섭수련회에서는 동사섭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되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을 다 아우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0여 년 동안 1만 2천 명의 수련생을 배출한 바 있다.

『10분 해탈』은 동사섭을 바탕으로한 용타스님의 수행맵을 적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10분 해탈 나아가 궁극에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행복해지는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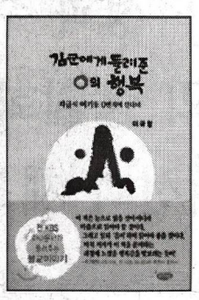
사기순 편집/ 불광출판



한국불교 최초로 신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신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한국불교의 추춧돌로 양성해낸 정무스님의 법문집. 은혜법문, 효도법문, 태교, 출산, 육아, 자녀교육, 결혼, 중년과 노년의 삶, 건강, 병고, 아름다운 죽음 등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주제들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스님의 간곡한 법문을 접하며, 눈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

이규항 지음/글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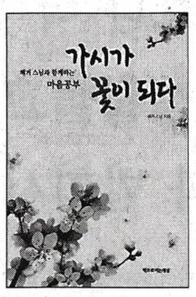


전 KBS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매일 먹는 '밥맛'과 수학의 '0'을 기초로 암호와 수수께끼 같은 붓다의 선과 중도를 풀이하였다. 더불어 노자와 유교사상도 '0'에 담았다. 저자는 삶에 대한 오래 천착에서 우러나오는 겸허한 목소리로 석가모니 부처가 발견한 제3의 신세계를 수필에 담아 풀어낸다.

이 책을 통해 불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 대신 마음으로 깨닫는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이규항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이후 35년간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정년했다. '96년 총지종이 원정 종조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종조법설집에 더빙을 담당한 바도 있다.

가시가 꽃이 되다

혜거 지음/책으로 여는 세상



금강선원 혜거 스님이 전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 탐욕은 날카로운 가시를 움켜쥐고 놓치 않는 것과 같다. 움켜쥐면 쥘수록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놓치 못하고 더 움켜쥐려고 한다. 탐욕을 두고 본능적인 독이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하지만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가시는 꽃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 『가시가 꽃이 되다』는 이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가시를 꽃피우기 위해 지녀야할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내면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밝아진 마음과 행실로 다시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루어진 이 마음공부를 통해 사랑과 용서, 자비가 주는 행복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꿈과 희망을 갖고 실천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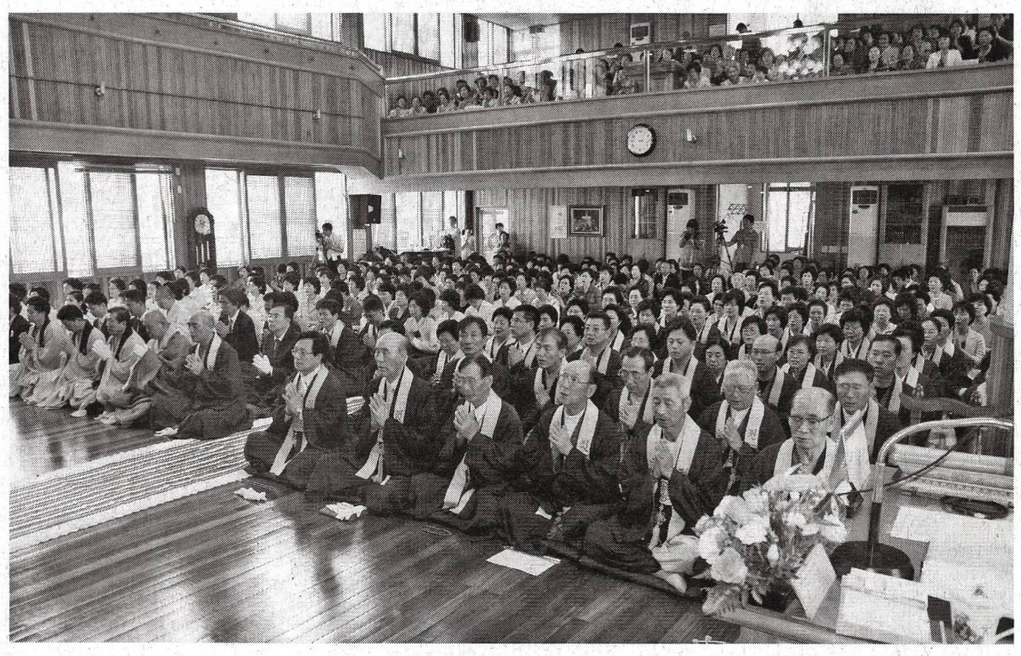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종보100호 기념 특집 기고 4 / 밀교연구소 기획>

현대 한국밀교종단의 탄생과 나아갈 방향 ②



"재가승의 승직생활과 가정생활의 괴리"
"출가승 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수행력이 요구…"
"진정한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를 위한 방안 필요"
"불공법과 법회시간의 개선과 재조정"

출가와 재가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독신의 문제, 즉 처자권속을 거느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당연히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재가승이다. 그렇지 않으면 출가승이다. 그러나 출가승이라 하여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처승 종단도 있고 곁으로는 출가승이나 암묵적으로 처자(妻子)를 두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온전한 출가승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재가(在家)에서 오는 승직자와 속인의 양면성과 이중성, 승직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오는 괴리에 대한 것이다. 출가승은 독신이지만 재가승은 가정을 꾸리고 있다. 독신은 말그대로 혼자이다. 여기서 출가와 재가는 출발부터 달라진다. 생활유형도 다르다. 단편적으로 보았을때 출가는 재가에 비해 수행과 포교활동면에서 홀가분하고 편리한 측면도 있다. 최소한 인사이동에 대해 곤란함과 번거로움이 없다.

출가는 홀몸이니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다. 때와 장소를 가라지 않는다. 그러나 재가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쉽지는 않다.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또 가정생활을 등한시 할 수 없다보니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출가는 독신이므로 부양해야할 식구가 없으니 자연히 세상사에 초연하고 자유롭다. 처자권속으로 인한 걱정거리가 없다. 외로움이나 기본욕구인 성욕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재가승은 말그대로 재가(在家)이므로 그러한 괴로움은 없다. 그것이 문제가되어 환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일반인들이 갖는 모든 세상사를 똑같이 겪고 있으므로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문제로 승작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재가승 입장에서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절제, 수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의를 갖추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도 참으로 힘들다.



혼란스러움과 괴로움이 늘 따라다닌다. 어찌보면 출가승 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신은 수행에 방해를 적게 받는 편이다. 인사 전근으로 인한 이동에도 걸림과 걱정이 없다. 출가승과 재가승 중에서 어느 쪽이 수행정도와 포교능력이 뛰어난지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출가와 재가 속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재가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슬기롭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재가승 종단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이는 곧 한국밀교재가종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재가종단의 특화가 곧 한국밀교종단의 중흥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라서 유리한 점도 많다. 승직자가 일반인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해서 신도들에게 거부감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승속(僧俗)이 동수(同修)라 가정문제나 여러 가지 인생 상담을 하기에 좋다. 왜냐하면 서로가 같은 가정생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냥 높아만 보이고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승직자가 바로 나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동질감과 소속감은 서로에 대한 벽을 허물고 친근함과 유대감을 높혀 준다.

신뢰감과 친밀감은 포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의사와 환자가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없는 것과 같다. 고부간, 친척 친지간, 형제동기간, 부모자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똑같이 겪는 입장이므로 상호 이해가 잘되고 의사소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를 쉽게 털어놓고 눈물과 정진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밤을 세워 같이 불공을 해주고 어려운 가정경제, 인간관계에는 적절한 도움과 법을 주므르써 어려움을 속히 헤쳐나가게 된다. 동질감과 상호신뢰는 신도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이것이 재가의 큰 장점이다.

또, 재가는 노령화로 포교 일선에서 퇴진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정을 꾸리고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는다. 그러나 출가(出家)의 경우는 노년을 걱정해야하는 편이다. 병들고 나이들면 당장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자리에 연연하여 사리사욕에 쉽게 빠져들기도 한다. 암투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리 거처할 사찰 마련에 혈안이 되는 경우다.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는 꼴이다.

그러나 재가승의 경우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 교화 일선에서 물러나면 의탁할 사가(私家)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가 출가승만큼 걱정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노후가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현직에 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교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재차 거론했듯이 재가는 재가라는 자체가 수행과 포교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 부양의무가 꼬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라훌라'라고 이름지었다. '라훌라'는 '장애'라는 말이다. 큰 스승인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자기 자식은 수행과 전법에 장애였던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를 좋아하겠는가! 그것이 중생이고 인간이다. 하물며 우리 범부들이야 말하여 무엇하랴. 출가든 재가든 처자식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승직의 길을 택한 이상 구도의 길, 중생제도의 길을 걸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승(僧)이 아니다. 출가는 애초부터 버리고 떠났지만 재가는 그 속에 있다.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것이다. 재가승(在家僧)에게 가정은 위안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수행과 포교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번뇌장이기도 하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것이 재가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큰 괴리이다. 현실과 이상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수행과 포교라는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재가종단의 커다란 과제요, 중요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재가종단의 사활은 곧 승직자의 양성과 교육, 그 역할과 위상의 정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단이나 조직의 발전은 다름아닌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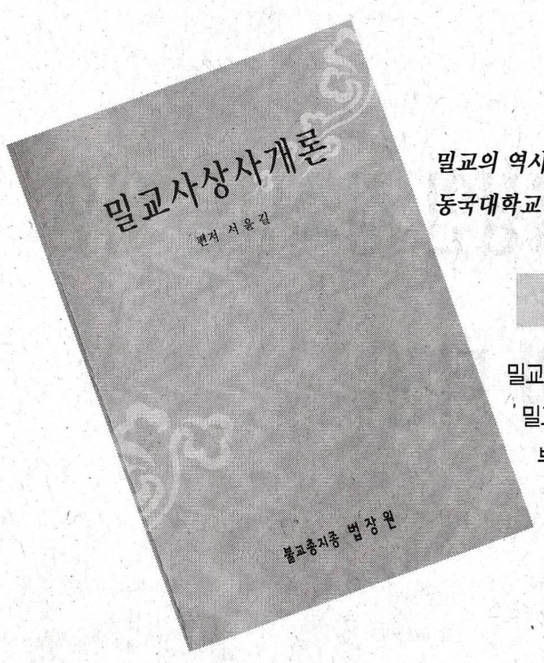
한국 밀교의 재가종단은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를 부르짖고 있다. 실제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에서는 맞을지 모르나 실제 일상 속의 신앙생활이나 수행적인 측면에서 거리가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자성일 법회'를, 매월 월초 1주간은 '월초불공'을, 1년에 2회에 걸쳐 상하반기 49일간의 불공을 승속(僧俗)이 모두 행하고 있다. 의식적인 면에서는 생활 가운데 항상 불공이 있고 불공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 생활불교요 불교의 생활화는 맞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예전의 농경사회에서는 많은 시간을 불공에 할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을 신도들로 하여금 뺏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바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불공 시간은 현대인들에게 당장 생활의 불편과 제약을 초래한다. 현실생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는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절에다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를 접목시키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일 사원에 나와서 불공하라고 해서 생활의 불교, 불교의 생활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재가밀교 종단은 불공법과 법회시간의 개선과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청장년의 포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를 표방했지만 정작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아이러니하게도 생활불교, 불교의 생활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재가종단이 앞으로 개선하고 정립해야할 과제는 많다. 일선 사원의 재정적 재량권 문제, 도량장엄의 문제, 의식의 통일화, 다양한 포교공간 마련과 프로그램의 개발, 대사회적인 참여와 활동, 승직자 양성과 교육, 어린이 청소년 포교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지면상 여기서 전부 언급할 수는 없다. 단지 이번에 언급한 부분들은 재가 밀교종단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살펴본 것들이다. 숲과 나무 모두를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법경 정사(밀교연구소연구원)

〈끝〉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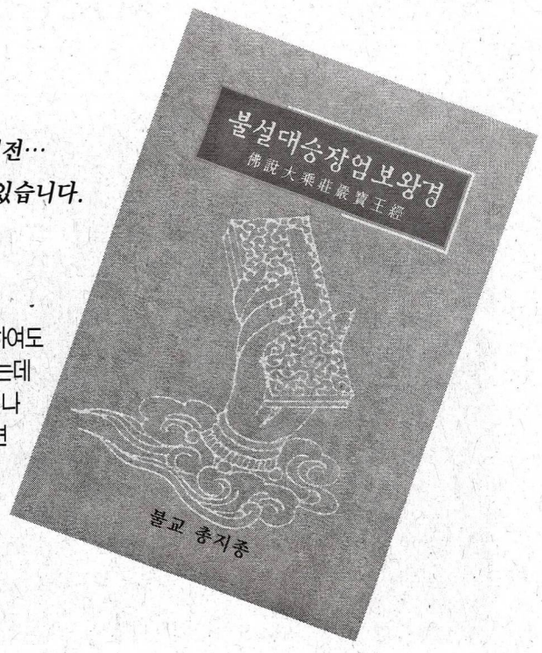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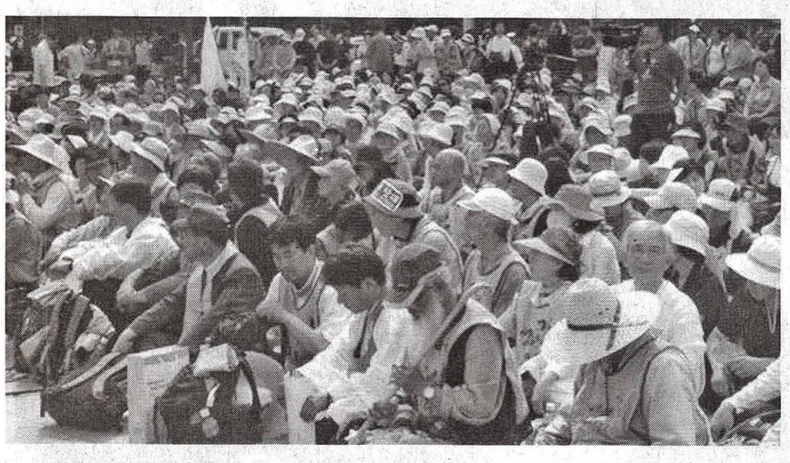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불교 총지종 법장원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교계소식

"생명의 강(江) 향한 발걸음은 이제부터 시작"

생명도보 순례단, 서울 종각서 회향



◇생명도보 순례단 회향식 장면.

"우리의 강(江)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당신들, 감사합니다!"

생명 앞에서는 종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한마음'만이 앞길을 비추었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하 생명도보 순례단, 단장 이필완)이 5월 24일 도보순례를 회향했다. 2월 12일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며 순례의 첫발을 뗀지 꼭 103일째 된 날이다.

이날 순례단의 마지막 걸음은 오전 8시 30분 잠수교 북단에서 시작됐다. 이후 도심지인 녹사평역에서 남산순환로, 숭례문, 종각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서울 도심지역을 걸으며 '생명과 평화의 강 모심 대행진'을 벌였다.

마침내 순례단의 발길이 종각역에 이르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시민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종각에서 순례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 속에서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종각에 들어서는 순례단 역시 손을 흔들며 시민들과 인사했다. 이렇게 순례단이 도착하자 약 5000여명의 종교인과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생명과 평화의 강모심 대회'가 열렸다.

행사는 무겁지 않게 진행됐다. 신명나는 소리와 노래, 시민들의 강을 위한 자유발언, 생명도보 순례단 소개 등이 진행되면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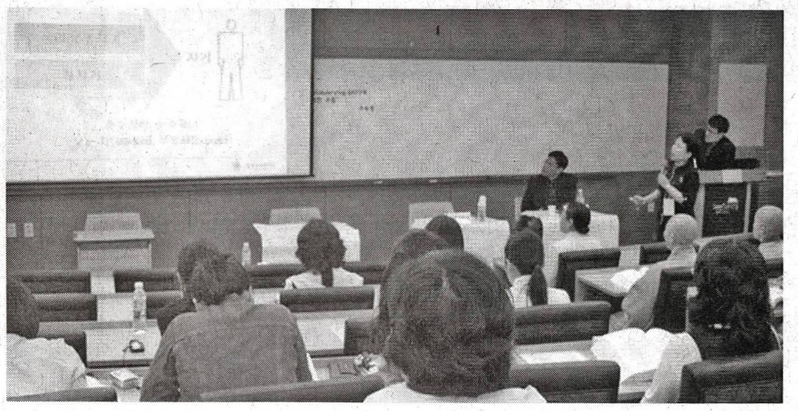
순례단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생명의 어머니이신 강을 모시기 위한 문화예술인공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남요원 · 도종환 · 홍일선)'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214인이 발간한 공동시집 〈그냥 놔두라. 쓰라린 백년 소원 이것이다〉를 증정했다.

순례단도 시민들에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인사했다. 시민들을 공경하는 뜻에서 이들은 무대위에 올라가 큰절을 올렸다. 그런데 103일 도보 순례의 소감을 묻자 순례단 이필완 단장이 함께 단상에 올라간 김전일(11), 김여진(9), 김은경(9) 어린이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러자 여진양이 "(순례단과 함께) 강을 보고 걷는 것이 좋았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운하 건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이 단장이 왜 어린이에게 마이크를 넘겼는지 짐작하고는 모두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4대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합동기도문'이 발표됐다. 축제 같은 분위기가 다소 엄숙해졌다. 지관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 대표들은 기도문을 통해 참회를 거듭하고 생명존중을 염원하며 "함께 오늘 저희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온전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행과 성찰의 첫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불교학결집대회 성료

20개국 150편 논문 발표 명상 분과 인기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세계 각 국의 불교학을 연구하는 전 세계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성과를 교류하는 2008 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19일 회향됐다.

20여개국 200여명의 불교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대와 상원사, 월정사 등에서 진행된 이번 결집대회에서는 한국불교, 응용불교 등 총 10개 분과에서 1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결집대회의 특징은 예전의 대회와 달리 불교학자들이 한국의 가정생활을 체험하는 홈스테이와 한국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된 점이다. 기존의 사찰 체험과 함께 가정문화를 직접 경험한 외국의 불교학자들은 홈스테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이번 결집대회에서 처음으로 분과로 선정된 '요가와 불교명상'은 가장 많은 방청객이 참가, 불교명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최근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지난 3차 대회에서 논문이 대거 등장했던 불교심리 및 상담 분야는 2편의 논문만이 제출돼 대조를 이뤘다.

이평래 2008불교학결집대회장은 "격년제로 진행되는 결집대회를 보다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학회가 순번제로 주관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왜란 전몰영령 천도 영산대재 봉행

태고종, 통영 · 한산도서, 영산재보존회 집전



◇임진왜란 전몰 호국영령 천도재.

태고종이 임진왜란 당시 전몰한 호국영령을 천도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태고종은 23일 경남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및 한산도 제승당에서 영산재보존회가 집전하는 영산대재를 열었다. 지난해 독도 해상에서 영산재를 봉행한 '영산재의 국토순례 대장정'의 두번째 마당이었다.

법회에는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운산스님 등 종단 중진스님과 전국 교구종무원 및 사암대표, 신도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6월 호국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몸바친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종교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호국정신이 깃든 통영에서 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이 이연공덕으로 남북의 평화적 관계개선과 국민통합, 국가경제가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사법 시행…사찰 수목장 · 장례포교 활성 기대

수림장. 장사법 시행으로 사찰 수림장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해사, 전등사, 기림사 등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목장이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또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조성, 장례 포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에는 개정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불교전통 장례문화인 다비의식을 명문화 했으며, 스님의 부도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봉안탑과 구별하게 됐다. 묘지(자연장, 수목장 포함) 조성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5천㎡, 일반 사찰에서는 3만㎡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신도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안치구수는 '5천구 이하'다. 개인 및 가족은 100㎡ 미만, 종중 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이외의 종교단체가 수목장 등을 조성하려면 종교단체 등록증,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중국 · 미얀마 돕기

긴급구호운동 본부 발족

서울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5월 22일 '중국 · 미얀마 돕기 긴급구호운동본부(이하 긴급구호운동본부)'가 결성됐다. 긴급구호운동본부는 자연재해에 신음하고 있는 두 국가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긴급구호운동본부는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 나눔과기쁨(회장 손봉호), 기독교사회책임(회장 최성규), 지구촌나눔운동(회장 강문규) 등의 종교 ·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5월 22일 현재 129개 단체가 가입된 상태다.

긴급구호운동본부의 1차 목표는 가입 단체를 200여개로 확대해 오는 6월까지 현금 100억, 물품 100억 등 총 200억원을 모연하는 것이다.

긴급구호운동본부는 "이런 일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급구호활동을 도와줄 해외 · 국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호소했다.

생활상식

◀ 물오징어 자르기

물오징어나 문어를 가늘게 직선으로 자르기란 쉽지 않다. 자르기 30 분 전에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 반 냉동 상태로 만들면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자를 수 있다.

◀ 냉동 건어물 굽기

냉동 건어물을 부서지지 않게 구우려면 알루미늄 포일에 씌워 구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 굽는 것이 좋다. 노릇노릇하게 익히고 싶으면 굽는 과정의 마지막에 포일을 벗기고 굽는다.

◀ 피망 꼭지 따기

피망 꼭지는 병 뚜껑으로 딴다. 병 뚜껑을 피망 꼭지 부분에 대고 빙글빙글 돌리면 쉽게 꼭지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드링크제의 뚜껑이 단단해서 좋다.

◀ 말린 재료 불리기

말린 버섯 등을 급히 불려야 할 때는 냉열 용기에 재료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설탕을 약간 뿌린 뒤 랩을 씌워 전자 레인지에 약 3 분간 돌리면 된다.

◀ 생선 껍질 벗기기

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토막 생선은 일단 얼려서 손질하는 것이 편리하다. 냉동실에서 꺼내어 잠시 두었다가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다.

◀ 삶은 계란 으깨기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에 너무 잘게 으깨지 않은 삶은 계란을 넣고 싶을 때는 거품기로 몇 번 눌러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도마와 칼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속도도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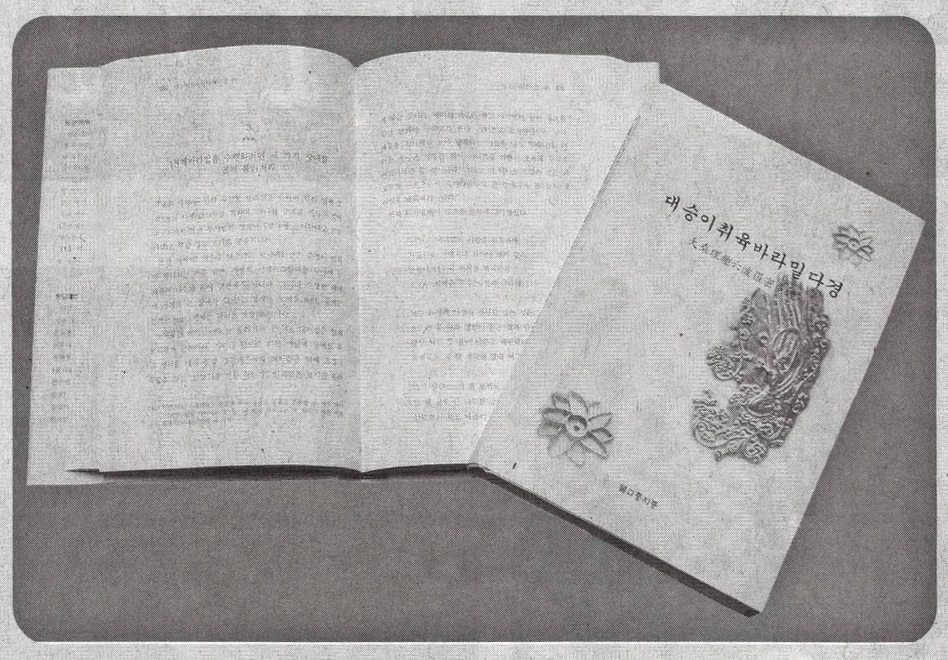
◀ 마늘을 으깰 때는 나무 주걱으로

마늘을 으깰 때는 식칼의 측면보다 나무 주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힘도 덜 든다. 나무 주걱의 움푹 패인 쪽을 손바닥에 대고 경사를 이용하여 누른다.

◀ 끓인 물을 식혀 만든 얼음

한 번 끓여서 식힌 물로 만든 얼음은 일반 얼음에 비하여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 끓으면서 수분 속의 공기가 빠져 나가 물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기가 적은 만큼 얼음의 온도가 일반 얼음에 비하여 덜 올라가며, 더 투명하다.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불 교 총 지 종 법 장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총지 FOCUS /정각사, 성화사, 시법사, 만다라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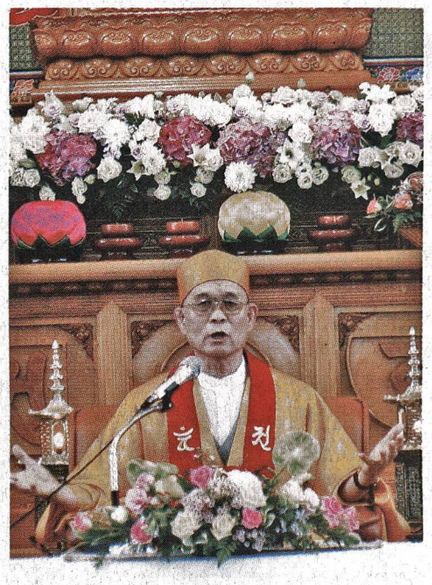
만다라 -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

만다라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본질, 정수를 얻다'는 뜻으로 우주 삼라만상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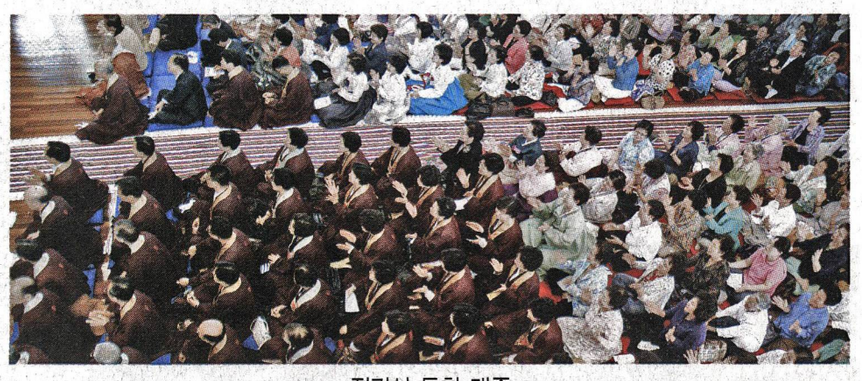
총지종 고유 불단양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는 불단을 화려 장엄하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신심을 북돋아 주는 아름다운 불화입니다.

2007년 춘계 강공회에서 만다라 봉안불사를 발표한 후 각 사원별로 잇따른 만다라 봉안불사가 봉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부산 정각사와 성화사 그리고 부평 시법사 만다라 불사를 화보로 꾸며 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효강 종령 예하



정각사 동참 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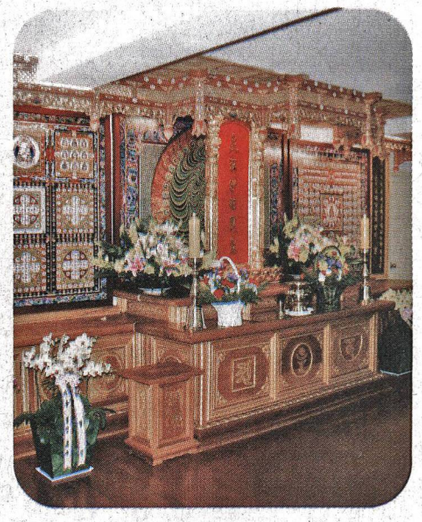
향 공양하는 신도들(정각사)



시법사 만다라 불사 기념사진



원송 통리원장



시법사 불단



시법사 주교, 임원



정각사 지회장, 신정회장 감사패 전달



국내 최대 규모인 양부 만다라(정각사)



시법사 만다라 불사 육법공양



육법공양 장면(성화사)



정각사 불사에 동참한 운집 대중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축사



폰으로 촬영하는 불자들(정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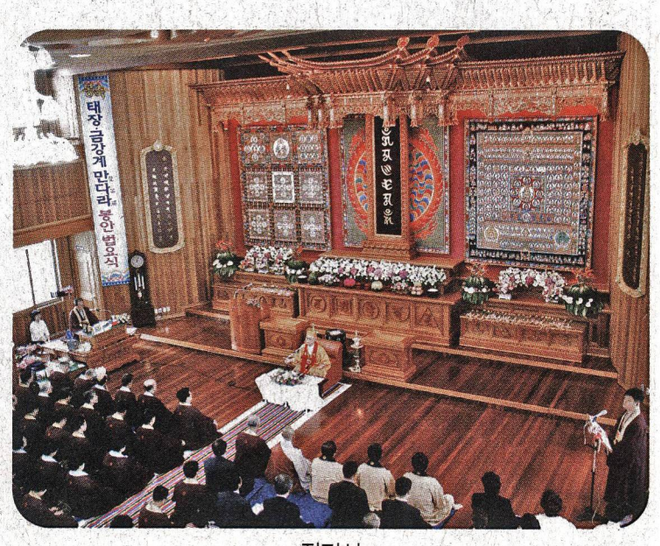
축가 합창



만다라 합창단(정각사)



제막 순간(정각사)



정각사

동해中, 조현오 부산시 경찰청장 초청 특강

'은사에 고마움 전하고 후배위한 조언'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는 5월 1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조현오 부산광역시경찰청장(치안감, 동해중 제2회 졸업생)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 청장은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열심히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후배들의 진로에 대한 비전 제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당부 말씀, 쇠고기 수입에 대한 촛불 시위 등에 휩쓸리지 말고 학습에 매진할 것 등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현오 청장의 모교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김현우 동해중 이사장, 백종헌 부산광역시 의회의원(7회 졸업생), 정관호 동래구의원(1회 졸업생) 등이 동참했다.

정각불교문화센터 개원

불교입문 등 강좌 다양

정각불교문화센터가 개원해 종단 교화 활성화에 일익이 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은 불교양강좌인 '불교입문'을 비롯해 어린이 강좌 '책읽는 미술', 취미강좌 서예, 오카리나, 꽃꽂이, 사군자, 등이 있다.

지난 3월 개강한 정각불교문화센터 강좌는 이달과 9월에도 연이어 개강한다. 입회비가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방문, 전화 모두 가능하다. 문의: 부산 정각사 051)552-0705/ 7901

세상사는 이야기

필리핀 내 딸

지난 5월 24일에 있었던 '서울별별 가족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좋은 경험을 했다. 처음 봉사의 뢰가 왔을 때에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며 거듭되는 부탁으로 다른 일은 접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 축제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은 희망결혼식 부분이다.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결혼이민자 부부 등 26쌍의 합동결혼식이다.

이 합동결혼식은 많은 기관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드레스와 턱시도 대여와 부케업체에서 신부 부케와 신랑의 꽃 제공 또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과 사진촬영 등 그날의 필요한 모든 것을 협조해 주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우리 문화자원 봉사자들은 이날 각각 신랑 신부 한 쌍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친정엄마나 언니처럼 모든 것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했다.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양한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혼식이기에 어색하고 미안해 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 더욱 세심하고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드레스를 입고 더워하는 신부들을 위해 서로 경쟁하듯 땀도 닦아 주고 부채질도 해 주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며 지냈다. 신부들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신랑 이야기며 자식자랑도 하며 우리들을 가족 대하듯 했다.

이 시간 그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부모 형제 생각이 얼마나 간절할까? 또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을까? 쳐다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안타까워 진다.

주례 선생님과 함께 사진촬영을 마치고 신랑 신부 사진도 찍고 가족사진도 찍는 모습이 잔디광장의 초록색과 잘 조화를 이루어 마치 동화 속의 왕자님과 공주님들의 모습 같다. 이들이 오늘 별별 축제의 주인공들이다. 잔디 광장의 모든 것들이 이들을 위해 존재하고 맑고 밝은 햇살은 오늘의 신랑 신부들에게 강력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 되었다. '작은 평화' 화동의 입장 뒤 신랑 신부가 손을 꼭 잡고 입장하기 시작 했다. 스물 여섯 쌍이 줄 지어 입장 하는 모습은 하늘나라 선녀들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결혼식장에서의 식은 편리 하긴 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이 탁 트인 광장에서의 합동결혼식도 새로운 결혼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오늘의 결혼식, 식이 끝날 때까지 대기 하고 있다가 퇴장하는 신랑 신부를 맞이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대기실에 가서 옷 갈아 입는 것을 도와 주고 꽃과 작은 선물도 안겨 주었다. 이들은 주최측에서 마련한 신혼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더운 날씨에도 별 탈 없이 결혼식이 잘 진행되어 마음 뿌듯하고 오늘 하루 행복해 하는 신부들을 대하니 살기 어려워하는 신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것이 괜한 걱정이어서 마음이 편안해 진다.

'오늘 나와 인연이 되었던 필리핀 내 딸, 그 밝고 행복해 하는 모습 영원히 간직하고 살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신랑 신부들 영원히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작은 봉사가 결혼한 신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고 한국 엄마들의 국경을 넘는 사랑으로 기억되어 앞으로의 생활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 나도 이번 경험을 통해 이주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 진 것 같다. 오늘 결혼한 여성들은 나름대로 뿌리를 내려 잘 살고 행복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아닌 오늘 이들의 모습은 외국인이 아닌 그대로 한국사람들 이었다.

우리들은 너무 한민족을 내 새워 그들에게 배타적은 아니었나 반성해 본다. 지금도 학교에 가면 외면 당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 모두 그들을 따뜻한 우리들의 품에 마음편히 안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다 같이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받아들입시다!

-박묘정

신행체험 (42)

동참(同參) 불공 열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힘없는 나도 같이 일어서게 돼 …'

스승님께서 항상 시간을 잘 지켜라, 자성일이나 월초불공을 특히 잘 지키라고 강조하신다. 매번 스승님, 정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마음으로는 알아듣겠는데 몸은 항상 바로 실행되지가 않았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연이 닿아야만 내 것이 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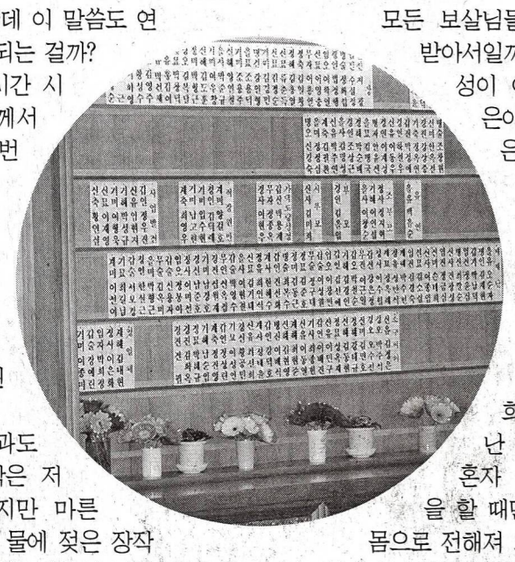
이번 월초불공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정사님께서 동참불공을 다시 한 번 강조해주셨다.

'동참(同參)'이란, 모든 보살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옴 마니 반메훔'을 부를 때 힘없는 나도 같이 일어서게 된다고 하셨다.

우리는 젖은 장작과도 같다. 물에 젖은 장작은 저 혼자서는 탈수가 없지만 마른 장작의 타오르는 불에 물에 젖은 장작도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말씀이 나를 번쩍 일으켜 세운다.

정말 이제야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온다.

첫 시간부터 정신을 가다듬고 다른 보살들과 함께 '옴마니반메훔'을 힘차게 따라 해본다. 반가부좌하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무릎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열이 온 몸으로 퍼진다. 열기로 충만해진 몸에 마음 또한 일념으로 자리 잡는다.



모든 보살님들 또한 같은 느낌을 받아서일까? 노 보살님들의 음성이 아닌 혈기 왕성한 젊은이의 목소리로 서원당은 활기가 넘친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정사님, 스승님들께서 강조를 하시는구나하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 때 그 깨달음의 희열은 월초불공이 끝난 지금도 여전하다. 나 혼자 서원당에서 동참불공을 할 때면 그 때의 열기가 온 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다.

그 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모든 보살님들의 서원이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 또한 진아(眞我)를 찾아서 마음을 모아본다.

김 경 숙 보살 (성화사)

만다라 세상

연꽃蓮華 - 만다라화曼荼羅華

연꽃은 진흙 못에서 피어난다. 물이 더럽고 지저분하여도 그 속에서 청정하고 아름답고 귀한 꽃을 피워내는 모습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님 가르침(佛法)에 비유되어 불교의 꽃으로 상징되고 있다. 또 무명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성취되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처렴상정(處染常淨)이라는 말은 연꽃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청정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곧잘 연꽃에 비유했다.

연꽃을 일러 만다라화(曼荼羅華)라고도 한다.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오묘한 법칙이 연꽃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염화시중의 미소에서 부처님이 들어 보인 꽃이 바로 연꽃이다.

또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서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있을 때 땅에서 연꽃이 솟아올라 태자를 떠 받들었다고 경전은 적고 있다. 인도에서는 연꽃을 진귀한 꽃으로 여겼으며, 청.황.홍.백련화 등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백련화는 번뇌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무구의 불법성에 비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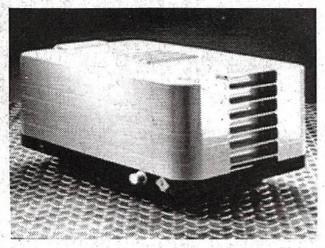
연꽃에는 각 부분마다 불교의 원리를 말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활짝 핀 연꽃잎은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고, 줄기는 우주의 축을 의미한다. 연합에는 9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는 9품을 말하며 3개의 연뿌리는 불.법.승 삼보를 뜻한다. 연꽃의 씨는 천 년이 지나도 심으면 꽃을 피운다 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상징한다. 또 꽃이 피면서 열매가 생기는 것은 인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꽃은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을 상징하기도 한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불교예술품들은 연꽃을 형상화하여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불보살의 좌대는 모두가 연꽃이다. 예술작품뿐 아니라 〈묘법연화경〉〈화엄경〉등 경전의 제목도 연꽃과 관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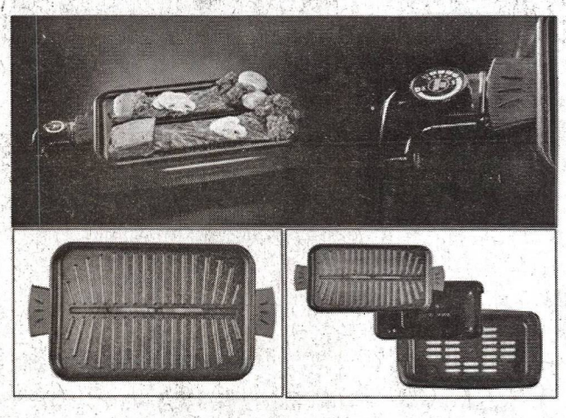
2008년 상반기 특판전

(주) 에스엠 커머스(생활가전/건강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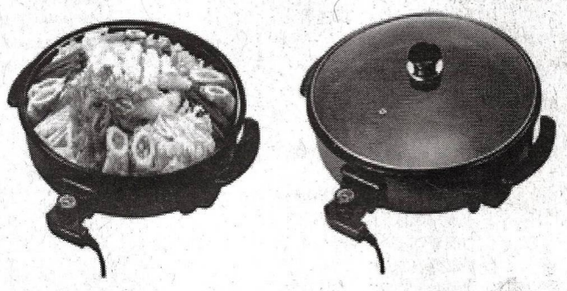
"시원한 가격에서, 고급스런 디자인에서 두 번 만족을 드립니다"



• LD-528 6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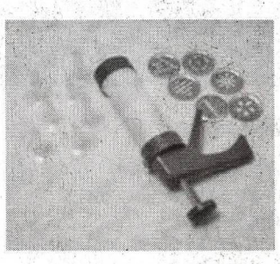
• 제품명:대원 테이블 전기그릴 • 모 델:DWP-331
• 특 징:조리팬,본체 분리형, 식탁에서 요리하면서 사용가능 골드마블코팅처리
• 가 격:35,000



• 제품명:피자팬 • 모 델:MU-1600N
• 특 징:자동 온도조절 방식, 피자,부침,후라이,전골,구이 등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가능
• 가 격:24,900



• 제품명:음식건조기 • 모 델:LDDD-528
• 특 징:과일, 야채 건조 웰빙 상품 기본6단+네트+솔리드Tray2개
• 가 격:소비자가 128,000(판매가 105,000



• 리큅저 키친(별매)



(주) 에스엠 커머스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품 기획전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상품 구입 문의 02 · 3431 · 0388(代) 팩스 02 · 3431 · 0240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11-1번지

진언행자를 찾아서 | 부산 정각사 신인록 보살

"心田 열심히 일궈 '마음부자' 됐습니다"

저만치 정각사 기와지붕이 시야에 들어 온다. 파아란 하늘과 싱그러운 신록을 배경으로 오색 연등이 주렁 주렁 걸려 있다. 서원당에선 교도들이 둘러 앉아 연등을 만들고 다느라 분주하다. 도량엔 부처님 오신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정각사의 산 역사

총지종 포교 거점도량 부산 정각사는 총기 원년 동래구 명륜동에서 태동했다. 초대 주교 정각원 스승의 자택을 무상 시주 받아 설단불사를 한 후 부산 선교부를 개설하였다.

그후 총기 4년 총지서원당으로, 총기 6년에는 정각사로 개칭하고, 사원 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총기 24년에는 도량 옆에 지하2층 지상4층의 부속 전당을 신축하고 어린이집과 사택 등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정각사는 창건 초기 교도 수의 폭발적 증가로 부산지역 여러 곳에 분원 형태의 수행공간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종단의 내로라 하는 스승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수많은 승직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한 바 있다.

이런 정각사 내력을 줄줄이 꿰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신 인록(불명: 밀승관 71) 보살이다.

"교도 개인이기에 앞서 정각사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행과 봉사, 애종심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하건 상을 내는 일도 없으니 보살이 따로 없지요"

정각사 주교 법공 정사가 큰 신뢰를 담아 말했다.

신 인록 보살은 총지종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장을 13년째 맡아 해오고 있다. 주위에선 고생한다는 뜻으로 "일복(福) 많다"고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소리는 전연 안한다고 한다. 다만 내심으로만 '부처님 일하는 복이 많은 것이니 사서라도 고생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런 데에는 사연이 하나 있다.

입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당시 주교였던 정각원 스승님이 나와 법대(法臺)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는 주워 달라고 하더란다. 게다가 서원당은 책상, 의자들로 가득차 운신을 못할 정도였다. 법대를 주워 드리고는 물건들을 말끔히 정돈을 해 놓고 나왔다고.

그후 얼마 안 있다가 스승님이 부르더니 정각사 총무를 하라고 했다. 석 삼 년을 하고 나니 다시 회장을 시키고 나중엔 지회장 소임까지 맡겼다. 신 인록 보살은 그 때 그 꿈이 부처님 일 많이 하라는 법문이 아니었겠냐고 말한다.

"중생은혜 마이 갚으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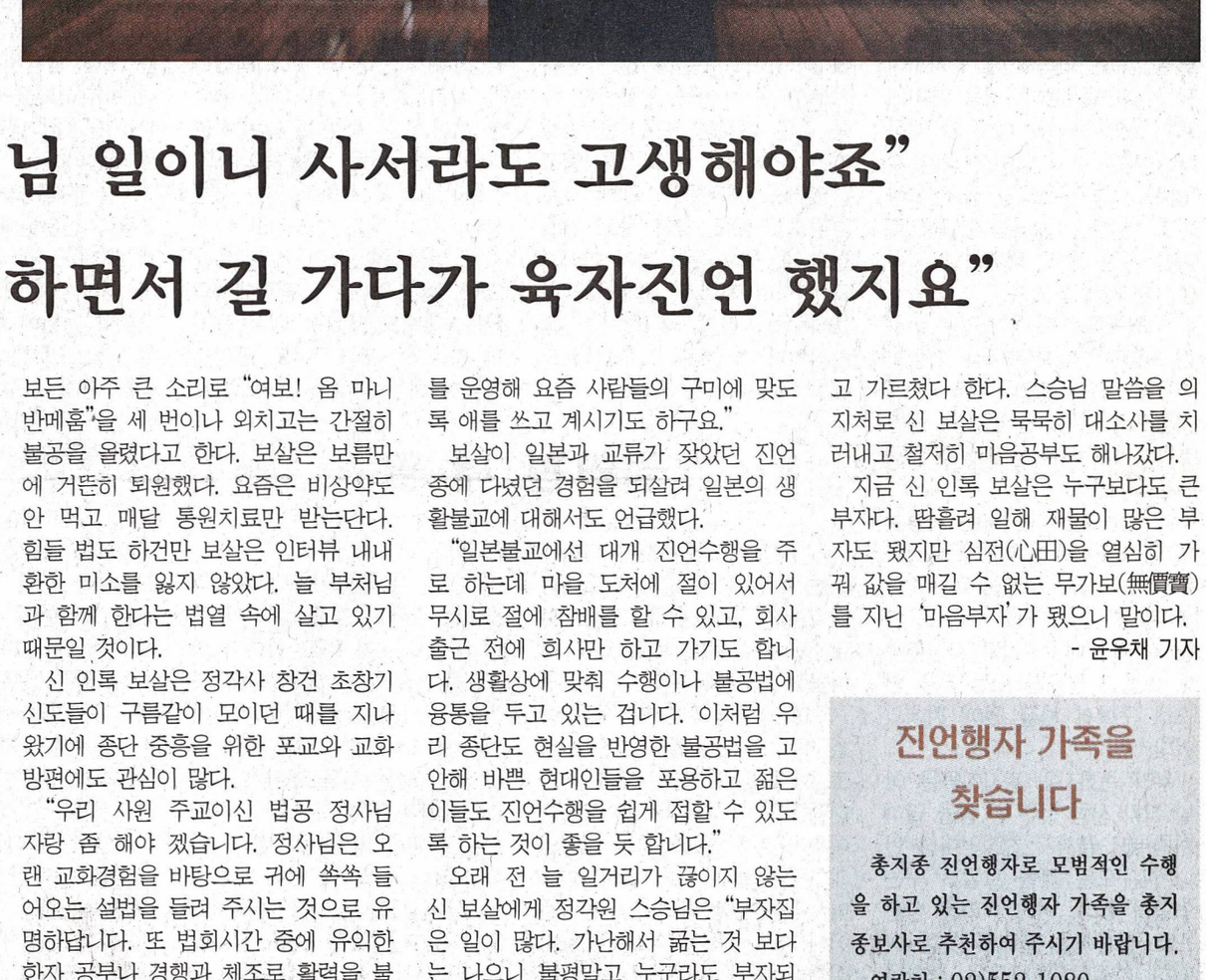
신 인록 보살은 40여년전 부산 전포동에 있는 진언종 사원을 다녔다. 여러 해 몸 담았지만 뜻이 맞질 않았다. 그러다가 각자님(노진율 72)과 인연이 있었던 이에게서 정각사 얘기를 들었다. 어느 날 정각사를 물어 물어 가서는 스승님에게 대뜸 "경제해탈 하러 왔다"했더니 스승님이 허허 웃더니 "중생은혜 마이 갚으이소"라고만 말했다 한다.

그렇게 입교 후 한 삼 년 열심히 진언수행을 하니 경제해탈은 물론 여러 가지가 풀려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각자님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자녀들은 대입시험을 치르던 시기였다. 불공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연 알게 되었고, 순조롭게 일들이 성사되었다.

입교 초기에는 월초불공 때가 되면 공식, 동참불공은 물론 오후 7시간 가행정진을 해나갔다. 그렇게 정진을 하고는 밤이 이슥해져서야 귀가하는 게 다반사였다.

"초발심때엔 일은 많고 시간은 없어서 주로 빨래를 하거나 길을 다닐 때에 항송(恒誦)을 했어요. 주야육시는 물론이고 행주좌와에 입에서 진언이 떨어지지 않게 애썼죠"

그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보살은 문득문득 느끼는 바가 있었다. 지금의 고통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 놓은 업장 때문이라는 것이 가슴깊이 와 닿았다. 그리고 현생에 기억에 남는 잘못된 습관들, 과거생에 지었을 무수히 많을 죄업들에 대해 참회했다.



"부처님 일이니 사서라도 고생해야죠"
"빨래하면서 길 가다가 육자진언 했지요"

신 인록 보살은 몇 해전 건강이 악화돼 세 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다. 그때 각자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수술실에 들어가는 보살 귀에 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주 큰 소리로 "여보! 옴 마니 반메훔"을 세 번이나 외치고는 간절히 불공을 올렸다고 한다. 보살은 보름만에 거뜬히 퇴원했다. 요즘은 비상약도 안 먹고 매달 통원치료만 받는단다. 힘들 법도 하건만 보살은 인터뷰 내내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늘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법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 인록 보살은 정각사 창건 초창기 신도들이 구름같이 모이던 때를 지나왔기에 종단 중흥을 위한 포교와 교화 방편에도 관심이 많다.

"우리 사원 주교이신 법공 정사님 자랑 좀 해야 겠습니다. 정사님은 오랜 교화경험을 바탕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법을 들려 주시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또 법회시간 중에 유익한 한자 공부나 경행과 체조로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죠. 아동센터와 문화센터를 운영해 요즘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애를 쓰고 계시기도 하구요."

보살이 일본과 교류가 잦았던 진언종에 다녔던 경험을 되살려 일본의 생활불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불교에선 대개 진언수행을 주로 하는데 마을 도처에 절이 있어서 무시로 절에 참배를 할 수 있고, 회사 출근 전에 회사만 하고 가기도 합니다. 생활상에 맞춰 수행이나 불공법에 융통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종단도 현실을 반영한 불공법을 고안해 바쁜 현대인들을 포용하고 젊은 이들도 진언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래 전 늘 일거리가 끊이지 않는 신 보살에게 정각원 스승님은 "부잣집은 일이 많다. 가난해서 굶는 것 보다는 나으니 불평말고 누구라도 부자되고픈 사람 여기와서 열심히 불공하라"고 가르쳤다 한다. 스승님 말씀을 의지처로 신 보살은 묵묵히 대소사를 치러내고 철저히 마음공부도 해나갔다.

지금 신 인록 보살은 누구보다도 큰 부자다. 땀흘려 일해 재물이 많은 부자도 됐지만 심전(心田)을 열심히 가꿔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보(無價寶)를 지닌 '마음부자'가 됐으니 말이다.

- 윤우채 기자



각자님, 자손들과 함께.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정각 불교문화센터



불교총지종 정각사

불교 교양강좌

불교입문 전통승단 교육에 기초, 불교의 실천적 이해, 부처님의 생애, 불교예의, 초발심자경문, 불사법요, 반야심경
강 사 : 보 정 | 전 고려대 연구교수 현 총지종 기획실장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까지
수강료 : 무료 / 3개월 교재비 별도(1만 원)

어린이 강좌

책 읽는 미술 (독서미술)
강 사 : 김정숙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4시 20분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재료비 별도 (1만 5천원)
대 상 : 초등 1, 2, 3학년

교육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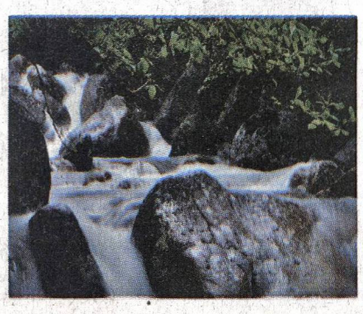
생활영어 (즐거운 기초영어회화)
강 사 : 박순영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수강료 : 6만 원 / 3개월 교재비 별도 (1만 원)

건강 강좌

요가
강 사 : 장선희
시 간 : 주 3회(월, 수, 금) 오후 4시 50분 ~ 6시
수강료 : 6만원 /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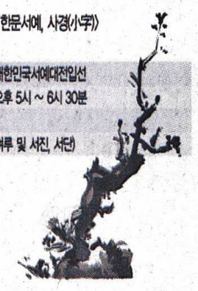
태극권 음위 노사의 태극 도인술, 진소왕 노사의 전사공
강 사 : 전통 진가 장문인 진소왕 현 양정 진소왕 태극권 도관 관장 부산 지방고등법원 태극권 수련지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출강 중
시 간 : 주 2회(화, 목)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수강료 : 2만 원 / 3개월

활기공 활공시 수기법, 승모근 풀어주기, 견갑골 풀어주기, 상지털 풀어주기, 요추 풀어주기
강 사 : 김대원 한국기공사 연합회 교육과장, 단학선원 활공사 트레이너, 단학선원 지원장, 지연의원 부원장(압 전문 지연치료의원)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 ~ 12시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취미 강좌

서예 강좌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경(小字))
강 사 : 샛집 김도명 / 대한민국서예대전입선
시 간 : 주 2회(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수강료 : 9만 원 / 3개월 재료 별도준비(벼루 및 서진, 서간)



오키리나 강좌
강 사 : 최숙자
시 간 : 매주 화요일 : 오후 1시 30분 ~ 3시
수강료 : 5만 원 / 3개월 재료 별도준비(오키리나)

꽃꽂이강좌 (생활꽃꽂이 자격증반, 꽃기계 창업반)
강 사 : 이미희 / 하정 꽃 예술경영회 전문 강사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토 오전 10시 30분 ~ 12시
수강료 : 6만 원 / 3개월 재료비 별도

사군자 강좌
강 사 : 시강 하연송 비연실내 전국휘호대회 대상(서예) 부산미술대전 우수상(문인화)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시 간 : 주 2회(화, 금) 오후 6시 30분 ~ 8시30분
수강료 : 10만 원 / 3개월

수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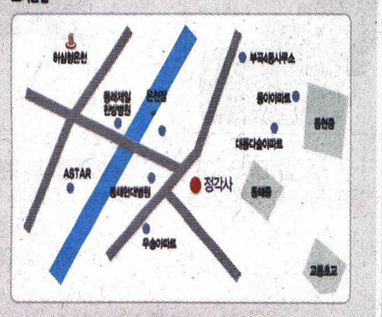
불교문화센터는 입회비가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시 작성하여 주시는 수강신청서로 회원 가입을 대체하며, 회원가입비는 없습니다.
강좌 개강은 3월, 6월, 9월, 12월이고, 수강신청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수강하실 경우 자녀분의 이름으로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전화 신청을 하실 경우 먼저 전화 주시어 현하시는 강좌의 마감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 주신 후 해당 강좌의 수강료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 예약기 접수 당일은 전화 접수를 받지 않고 방문 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강좌는 기존회원, 신규회원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며 강좌 개강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정상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 정기 강좌의 수업은 12회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법정 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는 3개월 기준이며, 별도로 표시가 없는 한 재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강좌 시작 후 접수시에도 수강료는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강 신청 후 환불이나 강좌 변경이 가능하며,
- 신청하신 강좌의 취소는 개강 후 2주 이내, 접수 후 2주 이내에 가능하며, 접수시 받으셨던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 변경을 원하시는 강좌가 마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강좌로 변경해 드립니다
- 강의 시간에는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오시는길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불교총지종 정각사
문의사항 : 051-051-552-0705/7901
051-552-7902FAX

정각불교문화센터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기 위한 불교문화공간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승속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회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는 부처님에 대한 숭배와 고답적인 수행이 아니라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마음의 여유와 자비로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불교적 문화 공간을 창출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하에 정각불교문화센토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